

예언의 기술

혹은 설교의 기술

THE ARTE OF
PROPHECYING



William Perkins

윌리엄 퍼킨스

예언의 기술 [혹은 설교의 기술]

윌리엄 퍼킨스 (1558~1602)

초판: 라틴어 1592년, 영어 1606년

예언의 기술 (Ad Fontes Edition)

원제: William Perkins, The Arte of Propheying, 1606

발행처: Ad Fontes (adfontes.kr)

발행일: 2026년 5월 6일

저작권 및 판권 안내

본 도서는 저작권이 만료된 원전을 바탕으로 Ad Fontes가 현대적 AI 기술과 전문 신학자의 감수를 결합하여 새롭게 편집·번역한 독자적인 판본입니다.

본 판본의 번역 및 편집 저작권은 Ad Fontes에 있으며, 대한민국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습니다. 저작권자의 서면 동의 없는 무단 전재, 복제, 공유 및 상업적 이용을 엄격히 금합니다.

번역 및 편집: Ad Fontes 편집부

『예언의 기술 (The Art of Propheying, 원제: Prophetica)』(1592)은 개혁주의 설교학의 초석을 놓은 역사적 문헌으로, 설교를 단순히 수사학적인 강연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공적인 사역'으로 정의한 책입니다. 퍼킨스는 이 책에서 설교자가 성경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를 어떻게 청중의 심령에 효과적으로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체계적인 방법론을 제시합니다. 특히 "성경은 그 자체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원칙 아래, 본문의 의미를 명확히 추출하여 신자들의 구체적인 삶의 정황(상태별 적용)에 맞게 나누는 방식을 강조합니다.

이 책의 가장 큰 유익은 설교의 중심을 설교자의 웅변술이 아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돌려 놓는다는 점에 있습니다.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해 성경을 대하는 엄밀한 자세와 더불어, 복음의 진리가 어떻게 사람의 지성과 의지, 그리고 감정에 도달하게 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오늘날 범람하는 감정 중심의 메시지 속에서, 성경적 원리에 충실하면서도 청중의 영혼을 깊이 관통하는 '참된 설교'의 원형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한 길잡이가 됩니다.

저자 소개: 윌리엄 퍼킨스 (William Perkins, 1558–1602)

윌리엄 퍼킨스는 엘리자베스 시대 영국 청교도 신학의 기틀을 확립한 인물로, '청교도의 아버지'이자 '영국의 칼뱅'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케임브리지 대학교 크라이스트 칼리지(Christ's College)의 펠로우로서 수많은 후학을 양성했으며, 그의 저술은 당대 영국 내에서 칼뱅이나 베자의 작품보다 더 많이 읽힐 정도로 압도적인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는 개혁주의 신학의 정수인 예정론과 구원의 확신 문제를 다루는 데 탁월했을 뿐만 아니라, 신학이 단순히 머리에 머무는 지식이 아닌 '영원히 복되게 사는 삶의 학문(The science of living blessedly forever)'이 되어야 함을 평생의 과업으로 삼았습니다. 퍼킨스의 신학적 엄밀함과 실천적 경건의 조화는 이후 존 오웬, 리처드 백스터 등으로 이어지는 청교도 운동의 거대한 물줄기를 형성하였으며, 대륙의 네덜란드 개혁주의(Second Reformation)에도 깊은 영감을 주었습니다.

서문

아래의 글들은 복음의 신실한 목회자들과 성스러운 학문에 관해 관심을 가지며 그 지식을 추구하는 모든 이를 위해 작성되었다. 설교 준비는 교회 안에서 매일의 과업이지만, 그 책임은 막중하며 결코 쉽지 않다. 사실, 신학 분야 가운데 설교학만큼 어려운 도전도 드물다. 설교의 주제는 예언이며, 이는 '고등 은사'임이 분명하다(고전 12:31 참조). 이는 그 존엄성이나 유용성 면에서 그러하다. 설교 은사의 존엄성은 전차에 도움을 받아 올라 탑승한 귀부인과 같아, 다른 언변이나 학문적 은사들이 하인처럼 그녀의 우월함을 인지하며 곁에 있는 것과 같다.

이 존엄성에 걸맞게 설교는 두 가지 가치를 지닌다.

- (1) 교회를 모아 택한 자들을 하나로 결집시키는 도구이며,
- (2) 주님의 양떼를 노리는 늑대들을 쫓아내는 역할을 한다.

설교는 영혼을 유혹하고 청중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으로서, 이로써 자기 뜻대로 향하는 우리의 마음이 굴복하여 경건하지 않고 이교적 삶의 방식에서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회개의 삶으로 변화된다. 또한 이는 고대 이단들의 기초를 뒤흔든 무기이며, 근래에는 적그리스도의 힘줄을 산산조각 내는 도구이다. 따라서 누군가 영적 은사 가운데 “가장 탁월한 것”이 무엇이나 묻는다면, 단연 예언의 은사에 그 영예를 주어야 한다. 좋은 것은 그것이 더 풍부하고 현명한 조언과 함께 신중하게 제시될 자격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일상적인 과업은 종종 다른 신학 학문들이 받는 관심에 비해 거의 부적절하고 빈곤하게 다루어진다. 나는 이에 신학자들의 저작을 철저히 연구하고, 그 가르침에서 일련의 규칙과 원칙들을 도출하여, 유용하고 기억하기 쉬운 방식으로 설명하고자 노력하였다. 이제 설교에 관한 이러한 성찰들을 출판으로 내놓는다. 만약 가치가 있다면 승인받고, 결함이 있다면 비판과 폐기를 당할 것이다.

이 설교 방식을 확신한다면 나와 함께 나아가라. 의심이 있다면 탐구하라. 방황한 지점이 있다면 나와 함께 바로잡자. 만약 내가 그릇된 길로 가고 있다면 너희가 걷는 길로 나를 인도하라. 경건하고 온건한 이들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너희가 나에 대한 호감을 곧 불호로 바꿀 것이다! 하지만 이 적은 페이지에 사소한 불평이 있다면, 나의 양심은 모든 비판에 대해 충분한 방어가 될 것이다. 나의 유일한 관심은 하나님 교회를 섬기는 데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를 그에게 맡기며, 이 '예언의 기술'이라는 작은 책도 너희와 함께 그에게 맡긴다.

윌리엄 퍼킨스

1592년 12월 12일

서론

예언 연구란 올바른 예언을 실행하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 지성을 바치는 것이다. 예언(또는 예언 행위)은 엄숙한 공개 발화로서 하나님의 예배와 이웃의 구원에 관련된 것이며, 다음 구절들이 이를 보여 준다:

“예언하는 자는 세 사람을 세우려 하며 격려와 권면과 위로를 말하나니”(고전 14:3)

“만일 모든 사람이 예언하면 또 어떤 불신자나 무식한 자가 들어와서 다 확신을 받고 책망을 받으리라”(고전 14:24)

“내가 증인 되노니 내가 내 영으로 그 아들의 복음에 섬기는 하나님”(롬 1:9)

I. 예언의 기술

예언에는 두 부분이 있다: 말씀 설교와 공개 기도이다. 예언자, 즉 말씀의 목회자는 두 가지 의무만을 맡는다. 하나는 말씀을 전하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백성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서로 섬기라”(롬 12:6)

“그 남자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가 선지자니 그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니 너희가 살리라”(창 20:7)

성경에서 ‘예언’이라는 단어는 설교와 기도 모두를 가리킨다: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이 수금과 현악기와 심벌을 가지고 예언하였더라”(대상 25:1)

“바알의 선지자들이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부르되... 정오가 지나서 저녁 제물 드리는 때까지 예언하였더라”(왕상 18:26, 29)

따라서 모든 예언자의 사명은 하나님의 음성(설교)으로, 그리고 백성의 음성(기도)으로 부분적으로 말하는 것이다:

“귀한 것을 악한 것에서 빼내면 너는 내 입 같으리라”(렘 15:19)

“에스라가 크고 존귀하신 여호와를 축복하니 모든 백성이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였더라”(느 8:6)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대신하여 예언하는 행위이다. 설교를 통해 듣는 이들은 은혜의 상태로 불러 들어가 그 안에 보존된다. 하나님은 ‘화목케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맡기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신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간청하시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할 것을 권면한다(고후 5:18, 20).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시어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에 대한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살후 2:13-14)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의 능력이라”(롬 1:16)

“계시가 없으면 백성이 망하나니”(잠 29:18)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며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며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롬 10:14)

II. 하나님의 말씀

완전하고 내적 일관성을 지닌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야 한다. 성경은 설교의 유일한 주제이며, 설교자가 힘써야 할 유일한 대상이다.

“모세와 선지자가 있으니 그들에게 들으라”(눅 16:29)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곧 그들이 모세의 율법을 가르치는 자라 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는 대로 다 지켜 행하라”(마 23:2-3)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에서 온 하나님의 지혜이며, 경건에 합당한 진리를 계시한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순결하고...”(약 3:17)

“하나님의 종 바울은... 경건에 합당한 진리의 인식에 따라”(딤후 1:1)

말씀의 본질과 효과가 모두 탁월하여 우리의 감탄을 자아낸다.

성경의 본질

성경의 본질적 탁월성은 완전성, 순수성, 영원성 측면에서 설명된다.

완전성은 충분성과 순수성으로 나뉜다. 충분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그 목적을 이루는 데 필수적인 것을 더하거나 빼지 않는 완전함을 뜻한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시 19:7)

“내가 명하는 모든 것을 삼가 행하고 더하거나 빼지 말라”(신 12:32)

“내가 이 예언의 책에 기록된 말을 듣는 자마다 증거하노니 누구든지 여기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을 그에게 더하시고 누구든지 제하면 그의 몫을 생명책과 거룩한 성과 이 예언서에서 제하시리라”(계 22:18-19)

성경의 순수성은 그 자체가 속임수나 오류 없이 완전하다는 점에 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한 말씀이라, 땅의 풀무에서 일곱 번 단련하였도다”(시 12:6)

말씀의 영원성은 불가침하여 그 명령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사라지지 않음을 뜻한다(마 5:18).

성경의 효과

성경의 탁월한 영향력은 두 가지에 있다:

1. 인간의 영혼 깊숙이 침투하는 능력: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으며 힘이 있어, 양날칼보다도 날카로워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찢러 쪼개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히 4:12)

2. 양심을 결박하는 능력, 곧 하나님 앞에서 변명하거나 고발하는 데 제약을 가하는 능력:

“구원과 멸망을 능히 행하는 단 한 분 입법자가 계시다”(약 4:12)

“여호와와 우리의 왕이시며 재판장이시고 율법 제정자시며 구원자이시다”(사 33:22)

성경은 거룩한 성서 안에 있다. 성경은 교회에 적합한 언어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사서나 비서로 직접 부르심 받은 이들이 기록하였다:

“예언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에 감동된 거룩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음으로 말하였느니라”(벧후 1:21)

이를 정경(정경성서)이라 부르는데, 이는 장인이 진리를 발견하고 검증하기 위해 사용하는 규범이나 기준선과 같기 때문이다:

“... 이 규정대로 행하는 자는 다”(갈 6:16)

그러므로 교회 내 모든 분쟁의 최종 판단과 판정은 성경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성경 메시지의 핵심은 다음과 같은 논증(삼단논법)으로 요약할 수 있다:

주전제: 참 메시아는 하나님과 사람이 되어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나올 것이며, 하늘 아버지 품에서 태어나 율법을 완성하고, 신실한 자들의 죄를 위한 희생 제물을 스스로 바칠 것이다. 죽음을 죽음으로 정복하여 부활하며, 하늘로 올라가시고 때가 되어 심판을 위해 다시 오실 것이다.

부전제: 나사렛 예수, 마리아의 아들은 이 모든 조건을 충족한다.

결론: 그러므로 예수는 참 메시아이다.

이 삼단논법에서 대전제는 모든 예언자들의 저작물의 범위 또는 주된 내용이다. 소전제는 복음서 기자들과 사도들의 저작물 안에 포함되어 있다.

III. 성경의 내용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뉜다. 구약은 성경의 첫 부분으로, 주로 히브리어(일부는 아람어)로 기록되었으며, 주로 ‘옛 언약’의 율법(‘모세와 예언자들’, 눅 16:29)을 펼친다. “모세와 모든 예언자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서 자기에 관한 것을 풀어 가르치셨다”(눅 24:27). 구약은 역사서, 교리서, 예언서로 구분되는 66권의 책들로 이루어져 있다.

구약

역사서

역사서는 발생한 사건들을 기록하면서 다른 책들에서 전개된 교리를 보여주고 확증한다: “이 모든 일이 그들에게 본보기로 일어났고, 우리를 교훈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고전 10:11); “전에 기록된 것들은 다 우리 교훈을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롬 15:4). 역사서는 총 15권이다:

1. 창세기는 창조, 타락, 구원의 첫 약속, 그리고 교회가 사사(개인 가정) 내에서 보존된 상태에 대한 역사이다.
2.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출된 역사로, 출애굽, 율법 수여, 그리고 성막을 서술한다.
3. 레위기는 의식 예배에 관한 규정을 기록한다.
4. 민수기는 가나안 땅에서 백성의 군사 활동에 관한 역사이다.
5. 신명기는 이전 책들에 나온 율법을 반복하고 해설하는 주석서이다.
6. 여호수아기는 여호수아 통치 아래 가나안 땅 진입과 점령을 묘사한다.
7. 사사기는 여호수아 시대부터 엘리 시대까지 이스라엘 교회와 공동체의 타락하고 절망적인 상태를 기록한다.
8. 룻기는 룻의 결혼과 후손에 관한 기록이다.
9. 사무엘상하서는 제사장 엘리와 사무엘 시대, 그리고 사울과 다윗 왕 치세 동안의 사건을 기록한다.
10. 열왕기상하서는 이스라엘과 유다 왕들의 시대에 있었던 일을 서술한다.
11. 역대상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시작, 확장, 멸망에 관한 체계적인 역사를 담으며, 그리스도의 혈통을 추적하고 해설하는 데 도움을 준다.

12. 에스라는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백성의 역사와 예루살렘 복구의 시작을 기록한다.
13. 느헤미야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예루살렘 성의 복구를 서술한다.
14. 에스더기는 페르시아 내 유대교회의 보존을 에스더의 행동으로 기록한다.
15. 욥기는 그의 시련의 원인들과 여러 갈등, 그리고 결국에 행복한 결말을 추적한 역사이다.

교리서

교리서 또는 교의서는 우리 신학의 교리를 가르치고 규정하는 책들이다. 구약에 네 권이 있다.

1. 시편은 교회와 그 구성원 각각의 모든 상태에 적합한 신성한 노래를 포함하며, 마음속 은혜를 위하여 불리도록 작곡되었다(골 3:16).
2. 잠언은 기독교인의 행실에 관한 안내서로서 하나님께 대한 경건과 이웃에 대한 정의를 가르친다.
3. 전도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추구되는 모든 인간 쾌락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드러낸다.
4. 아가서는 신랑과 신부(또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비유하여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묘사한 우화적 서술이다.

예언서

예언서는 하나님의 심판 예언이나 교회의 구원이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최종적으로 완성될 것에 관한 예언을 담고 있다. 이 예언들은 회개 촉구와 함께 제시되며, 거의 항상 회개하는 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위로를 가리킨다. 예언자들은 자주 길게 설교한 내용을 요약하여 청중의 기억과 이해를 돕는 특징이 있다: “또한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큰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사람의 붓으로 그것에 기록하라”(사 8:1); “그 환상을 기록하여 판에 또렷이 써서 달려가는 자로 읽게 하라”(슥 2:2).

예언서는 보통 ‘대예언서’와 ‘소예언서’로 구분된다.

- 대예언서는 예언한 바를 상세히 기록하며,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의 예언이 포함된다. 여기에 요시아 왕 사후 유대인의 비참함을 표현한 예레미야 애가도 포함된다.

- 소예언서는 미래 예언을 더 간략하거나 덜 자세히 다루는데,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가 이에 해당한다.

이로써 구약에 관한 설명을 마친다.

신약

신약은 성경의 두 번째 부분이며, 그 내용은 사도들에 의해 기록되었거나 사도들의 승인을 받아 그리스어로 작성되었다(엡 2:20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교회' 참조). 신약은 새 언약 교리를 분명히 설명한다. 베드로는 요한 마가가 복음서를 기록하도록 지시하고 승인했으며, 요한 복음서의 저자 요한은 누가복음을 승인하였다. 유세비우스가 기록한, 바울서신 두 곳(딤후 2:8, 롬 2:16)에서 바울이 누가복음 저자임을 암시한다는 견해는 설득력이 약하다. 해당 구절들에서 바울이 언급하는 복음은 책으로서의 복음이 아니라 그의 전체 사역을 의미하며, '내가 악한 자와 같이 죄사슬에 매여 환난을 받는다'(딤후 2:9)고 덧붙이고 있기 때문이다.

신약은 역사서와 서신으로 구성된다.

역사서

1.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네 권의 복음서는 그리스도의 잉태부터 승천까지 생애, 행적, 가르침의 내러티브를 담고 있다. 이 네 복음서 저자 중 둘은 직접 듣고 본 증인으로서 역사적 사실을 더욱 확실히 전할 수 있다. 복음서 간 차이는 다음과 같다:
 - 마태복음은 그리스도의 교훈을 명확하게 전달한다.
 - 마가복음은 간략하나, 제롬의 생각과 달리 마태복음의 축약본이 아니다. 시작과 서술 순서가 완전히 다르며, 일부 내용을 더 일반적으로 다루고 새로운 자료를 일부 삽입하였다.
 - 누가복음은 정확한 역사를 제공하기 위해 특정한 순서로 사건들을 서술한다.
 - 요한복음은 거의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신성과 그로부터 오는 우리 혜택을 드러내는 데 집중한다.

제롬은 복음서 저자들을 서로 다른 접근법에 따라 구별하였다. 그는 마태를 사람에 비유한 데, 이는 그리스도의 인성을 다루기 때문이고, 마가를 사자에 비유한 것은 세례 요한의 설교를

사자의 포효에 비유했기 때문이다. 누가를 황소에 비유했 것은 제사장 스가랴가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시작하기 때문이며, 요한을 독수리에 비유했 것은 높이 날아올라 그리스도의 신성을 드러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2. 사도행전은 베드로와 바울의 사역을 중심으로 초대교회의 조직과 운영을 질서 있게 기록한 역사서이다(딤후 3:10 참조).

3. 요한계시는 요한 사도가 살던 시대부터 세상 끝날까지 교회의 상태를 예언적으로 기록한 역사이다.

서신서

서신서는 바울이 쓴 13통이 있으며 주요 주제는 다음과 같다:

1. 로마서: 칭의, 성화, 그리고 기독교인의 생활 의무
2. 고린도전서: 고린도 교회 내 폐단 개혁
3. 고린도후서: 바울의 자기 변호 및 사도직 옹호
4. 갈라디아서: 율법 행위 없이 믿음으로만 칭의
5. 에베소서,
6. 빌립보서,
7. 골로새서,
8. 데살로니가전서,
9. 데살로니가후서: 교리 확립 및 기독교인의 의무 확인
10. 디모데전서,
11. 디모데후서: 교회의 올바른 질서 규정
12. 디도서: 크레타 교회 질서
13. 빌레몬서: 도망친 종 오네시모의 영접

히브리서는 그리스도의 위격과 직분을 다루며, 선한 행실을 맺는 신앙의 성격을 설명한다.

야고보서는 믿음에 수반되는 선한 행실을 해명한다. 베드로전후서는 성화와 새로운 순종의

행위를 논하며, 요한일서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증거를 설명한다. 요한이서는 ‘택하신

여자’에게 진리 안에서 인내할 것을 권하며, 요한삼서는 가이우스에게 환대와 선한 일에 대한

지속성을 권면한다. 유다는 거짓 예언자의 영향에 맞서 믿음의 인내를 강조한다.

이와 같이 이 책들이 정경 성경에 속한다.

성경 정경

이 책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보여 주는 강력한 증거가 있다. 하나의 증거는 이를 알게 하고, 다른 하나는 이를 표현한다.

전자의 경우는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내적 증거, 즉 한 개인에게 마음속으로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이 성경의 책들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효과적으로 설득하는 단 하나의 증거뿐이다. “내 영이 네 위에 있고 내가 네 입에 두는 내 말이 네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며... 이 날부터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사 59:21). 우리가 설득되는 방식은 다음과 같다. 택함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 먼저 성경 안에서 그리스도의 음성을 분별한다. 더 나아가 그들이 분별하는 음성을 승인하고, 승인하는 것을 또한 믿는다. 마지막으로 믿음으로써 그들은 (마치) 성령의 인장을 받는 것이다. “너희가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은 그 안에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엡 1:13). 교회는 성경 정경에 대해 증언할 수 있으나, 그 권위에 대해 내적으로 우리를 설득할 수는 없다. 만약 그렇다면, 교회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보다 더 큰 힘을 갖게 되어 인간 구원의 전 과정이 사람들에게 달려 있게 될 것이다. 그보다 더 비참한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이 견해에 대해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여러 가지 반론이 제기되었다.

반론 1: 성경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말씀이나, 우리에게 그러한 것이 명확하지 않은 것은 오직 교회의 판단을 통해서이다.

답변. (i) 이는 무관한 대조이다. 전자는 성경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인지(즉, 하나님으로부터 영으로 호흡된 것으로서 그 자체로) 보여주고, 후자는 어떻게가 아니라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보여준다. (ii) 성경 자체는 모든 인간의 맹세보다 더 확실한 증거로 스스로를 증언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성경에서 듣고, 우리가 성경을 듣고 읽으며 묵상할 때 그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영감에 대한 완전한 확신을 주시기 때문이다. 우리는 교회가 믿어야 한다고 말하기 때문에 어떤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말하는 내용이 먼저 성경에 의해 말해졌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다. 실제로 교회는 믿음 없이 존재할 수도, 상상될 수도

없으며, 믿음도 말씀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말씀만이 믿음의 규칙이자 대상이며, 단순히 인간(심지어 가장 거룩한 인간)의 판단이 아니다. (iii) 성경을 의심하는 자는 교회의 증언도 의심할 것이다.

반론 2: 교회는 그러한 문제를 결정하는 데에 있어 적절한 판단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예를 들어, 예루살렘에서 사도들과 장로들의 특별한 공의회에서 보내진 편지는 “성령과 우리에게 다 좋게 보였으므로”(행 15:28)라고 표현되었다.

답변: (i) 신앙 문제에 대한 주권적 판단권은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특권이다. 교회의 판단 사명(또는 사역적 판단)은 교회가 반드시 성경에 따라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다. 그러나 교회가 항상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 실패한다. (ii) 사도들은 예루살렘 공의회에 참석한 사람으로서, 그들의 권위는 그 자체로 믿을 만하였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의 사명은 더 이상 즉각적 권위를 가지지 않는다. 따라서 교회가 성경에 부여하는 선언 또는 증언의 증거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입증하거나 우리를 설득하지 않는다. 다만 그것에 대해 증언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참 정경을 승인할 뿐이다.

그렇지만 이 증명은 다면적이다. 첫째, 성경에 대한 교회의 영구적 동의가 있다. 이는 구약 시대의 신자들로부터 시작되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맡겨졌다(롬 3:2). 신약과 교회에서도 계속된다: (a) 그리스도와 사도들로부터, 그들이 그 책들에서 증언들을 인용하였다; (b) 교부들로부터: 오리겐, 사르디스의 멜리토, 아타나시우스, 키릴, 키프리아누스, 루피누스, 힐라리우스, 예로니무스, 에피파니우스, 그레고리우스 등; (c) 니케아 공의회와 라오디케아 공의회로부터. 둘째, 이교 사상가들과 심지어 신앙의 적들조차도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과 동일한 내용을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호메로스, 플라톤, 요세푸스, 락탄티우스, 키케로, 버질, 스웨토니우스, 타키투스, 플리니우스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셋째, 말씀의 고대성이다. 이 말씀은 세계의 시작부터 인간 역사를 기록한다. 반면 가장 오래된 세속 역사는 기원전 5세기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 이전에 기록되지 않았다. 넷째, 이방인의 부르심, 적그리스도의 출현, 유대인의 배교와 같은 예언의 성취가 성경 기원의 확고한 증거이다. 다섯째, 성경 가르침의 내용을 들 수 있는데, 유일한 참 하나님, 참된 하나님에 대한 예배, 하나님이 구원자라는 진리가 그것이다. 여섯째, 성경의 여러 부분이 모두 조화를 이루는 점이다. 일곱째, 교회가 경험한 모든 위기와 일반적인 반란의 시기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놀랍게 보존된 방식이다. 여덟째, 성경의 효과이다: 그것은 사람들을 회심시키며, 그들의

생각과 욕망에 완전히 반대되더라도 그들에게 굴복하게 만든다. 아홉째, 하나님의 위엄으로 충만한 간결한 언어이다. 마지막으로, 거룩한 저자들이 자기 자신의 부패를 숨기지 않은 점이다. 그러나 모세는 자신을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 칭찬한다. 이 둘은 이들 저자들이 성령에 의해 인도되었음을 믿어야 할 또 다른 근거이다.

복음서 속에 묘사된 그리스도는 분명히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임을 주장한다. 그분은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에게 돌린다. 만약 이 주장이 옳지 않다면,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같게 되려 한 아담과 헤롯처럼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일어난 일은 하나님께서 헤롯과 유대인들, 빌라도, 교회를 박해한 황제들에게 그 죽음에 대한 복수를 하셨다는 것이다. 이렇듯이 이것들이 성경의 신성한 기원을 보여주는 증거들이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도비트서, 마나쎄의 기도, 유딧서, 바라크서, 예레미야서 편지, 다니엘서 부록, 제3·4 에스라서, 에스더서 첨가 부분, 마카비서 1·II, 지혜서, 그리고 집회서(전도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들로 정경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1. 이들은 선지자들에 의해 쓰여지지 않았다.
2. 히브리어로 쓰여지지 않았다.
3. 신약에서 그리스도나 사도들이 이들 책의 증언을 인용하지 않는다.
4. 성경에 반하는 거짓 교훈을 포함한다.

IV. 성경 해석

지금까지 우리는 설교의 대상을 논의하였다. 설교는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설교 준비와 설교 선포. 여기서 주님의 말씀이 관련된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하늘나라에 대하여 가르침을 받은 서기관이 마치 집 주인이 그 곳간에서 새것과 옛것을 내어 놓는 자와 같으리라 하시니라”(마 13:52).

준비

준비 과정에는 신중한 개별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여러 성경 구절이 이를 강조한다: “내가 올 때까지 읽는 것과 권면하는 것과 교훈하는 것에 힘쓰라”(딤후 4:13); “이 구원을 위하여 구약의 선지자들이 연구 탐구하였으니 이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곧 예언한 것이라”(벧전 1:10); “다리오 왕 첫 해에 내가 책들을 통하여 세월을 깨달았노라”(단 9:2).

신학 공부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언을 따라야 한다. 우선 성경 교리의 총체와 핵심을 그 정의, 구분, 설명과 함께 명확하게 마음과 기억 속에 확립한다. 둘째, 성경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읽는다. 문법적, 수사학적, 논리적 분석과 관련 보조 학문을 활용하여 바울의 로마서부터 먼저 읽는다. 그다음 요한복음을 읽는다. 이 두 권은 신약성경의 열쇠와 같다. 그 후 신약의 다른 책들이 더 쉽게 이해될 것이다. 이 과정을 마친 후에는 구약의 교리서들, 특히 시편을 공부하고, 그 다음 선지서들, 특히 이사야서를, 마지막으로 역사서들, 특히 창세기를 공부한다. 사도들과 복음 전도자들이 이사야와 시편을 많이 읽었음은 신약에서 이 두 책의 인용이 다른 어떤 구약 성경 책보다 빈번하기 때문에(약 60회) 매우 가능성이 높다.

셋째, 우리는 정통 기독교 저자들에게서 도움을 얻어야 한다. 이는 현대뿐 아니라 고대 교회에 속한 자들로부터도 그래야 한다. 왜냐하면 사탄은 고대의 이단들을 다시 되살려 우리 시대에 시작된 교회 회복을 지연시키기 때문이다. 반삼위일체론자들은 단지 아리우스와 사벨리우스의 견해에 새로운 옷칠만 한 것이다. 급진적 무정부주의자들은 에세네파, 카타리파, 열광자들, 도나투스파의 교리를 반복한다. 스펠디안파는 에우티키우스파, 열광자들, 기타 견해를 되살린다. 멘노파는 에비오니파를 따르고, 로마 가톨릭은 바리새인, 앙크라티테스, 타티안, 펠라기우스파를 닮았다. 자유주의자들은 영지주의자들과 카르포크라티안파의 견해를 반복한다. 세르베투스, 사모사타의 바울, 아리우스, 에우티케스, 마르키온, 아폴리나리우스의 이단을 부활시켰다. 마지막으로, 복음주의 교회에서 자신을

분리한 분열자들은 키프리아누스가 푸피아누스, 아우디안, 도나투스파에 귀속시킨 의견, 사실, 양식을 부활시킨다. 우리는 이러한 이단을 거부하고 반박하는 새 방법을 찾을 필요가 없다. 공의회와 교부들에서 발견된 고대의 방법들이 이미 충분히 검증되고 여전히 신뢰할 만하다.

넷째, 공부하면서 발견한 중요하고 기록할 만한 사항은 표나 기록장에 적어 두어 오래된 자료와 새 자료를 함께 손에 넣을 수 있게 한다.

다섯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여 우리의 눈을 열어 성경의 의미를 보게 하심을 청하는 것이다: “내 눈을 열어 주사 주의 율례 중에서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시 119:18); “내가 불로 단련한 금을 사서 눈에 바르는 안약을 발라서 보라 하노라”(계 3:18).

기록장

기록장을 작성할 때 다음의 실용적인 조언을 제시한다:

1. 교리의 모든 주요 항목에 대한 가장 흔한 제목 목록을 만든다.
2. 기록장 오른쪽 페이지를 세로로 여러 칸 또는 같은 크기의 섹션으로 나눈다. 각 페이지의 머리에는 주요 주제를 적고, 다음 페이지는 공란으로 남겨 두어 여분 공간을 확보한다.
3. 책에서 읽은 모든 내용을 기록하려 들지 말고, 기억에 남거나 특이한 내용만 기록한다. 인용문을 그대로 옮기지 말고, 적절한 출처와 함께 주요 사항만 적는다. 또한 기록장 내에 메모를 하여 해당 내용을 찾기 쉽게 한다.
4. 어떤 것들은 다른 것들보다 정확하게 분류하는 데 더 어려울 수 있다. 그러므로 그것들을 쉽게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알파벳순 표를 추가해야 한다.
5. 책에 너무 의존하지 말라. 그것들이 기억 속에 확실히 숨겨져 있지 않다면 적어 두는 것은 무의미하다. 준비는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본문의 의미 해석과 질서 있는 설명을 위한 적절한 구분이다.

해석

해석은 성경 말씀과 진술을 열어서 그것의 단일하고 완전하며 자연스러운 의미를 드러내는 것이다. 이에 반해 로마 교회는 성경 구절들이 네 가지 의미를 가진다고 믿는다: 문자적, 우화적, 도덕적(비유적), 그리고 영적(천상학적) 의미이다. 이러한 예는 멜기세덱의 상징적 이해에서 볼 수 있다. 그는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바쳤다(창세기 14:18). 문자적 의미는 살렘 왕이 가져온 음식으로 여행에 지친 아브라함의 병사들을 위로했다는 것이다. 우화적 의미는 제사장이 미사에서 그리스도를 바친다는 뜻이다. 도덕적 의미는 우리가 가난한 자에게 베풀어야 한다는 교훈이며, 영적 의미는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신자들에게 생명의 떡이 되리라는 것이다. 이러한 성경의 사중 해석 방식은 거부하고 폐기되어야 한다. 성경에는 오직 하나의 의미, 즉 문자적 의미만 존재한다. 우화는 단지 동일한 의미를 다른 방식으로 표현한 것일 뿐이다. 영적 해석과 도덕적 해석은 본문 의미를 적용하는 방법이다.

성경 해석의 주된 해석자는 성령이다. 법을 만드신 분이 그 법의 가장 뛰어나고 최고 해석자이다. 해석의 최고 절대적 수단은 성경 자체이다: “그들이 여호와와 율법 책에서 분명히 읽으며, 그 뜻을 풀어 주어 깨닫게 하였더라”(느헤미야 8:8). 그러나 본문 해석을 돕기 위한 세 가지 부차적 수단이 있다: 신앙의 비유, 특정 본문의 환경, 그리고 다른 본문들과의 비교이다.

신앙의 비유는 성경의 명확하고 잘 알려진 부분에서 도출된 성경 전체의 요약이다. 여기에 두 요소가 있다. 첫째는 사도신경에서 다루는 믿음에 관한 것, 둘째는 십계명에서 설명하는 사랑(자애)에 관한 것이다. “내가 들던 바 그 바른 말과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 안에 있는 것의 본을 굳게 붙잡으라”(디모데후서 1:13).

본문의 환경은 다음과 같은 간단한 질문을 통해 명확히 할 수 있다: 누가 말하는가? 누구에게? 어떤 상황에서? 언제? 어디서? 무슨 목적을 위해? 그 앞에는 무엇이 있는가? 그 뒤에는 무엇이 오는가?

본문 비교는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서로 다른 구절들을 서로 비교하는 것이다. “사울이 다메섹에 거하는 유대인을 혼란케 하여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 증명하니라”(사도행전 9:22). 본문 비교는 다음 두 가지를 포함할 수 있다:

1. 첫 번째는 한 문맥에 있는 진술을 성경 내 다른 곳과 비교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 귀를 무겁게 하며 그 눈을 감아 ...”(이사야 6:10). 이는

신약에서 여섯 차례 반복된다(마태복음 13:14; 마가복음 4:12; 누가복음 8:10; 요한복음 12:40; 사도행전 28:27; 로마서 11:8). 이처럼 본문이 반복될 때 다양한 이유로 변형된 경우가 많다. 예로는 다음이 있다:

(i) 설명적 목적: 설명을 명확히 하기 위해. 예: 시편 78:2가 마태복음 13:35에 인용됨, 시편 78:24가 요한복음 6:31에 인용됨, 이사야 28:16이 로마서 9:33에 인용됨, 시편 110:1이 고린도전서 15:25에 인용됨, 시편 116:10이 고린도후서 4:13에 인용됨, 창세기 13:15가 갈라디아서 3:16에 인용됨.

(ii) 구별, 표기 또는 명확화 목적: 장소, 시간, 인물 등을 구별하기 위함. 예: 미가 5:2 인용이 마태복음 2:6에 있음.

(iii) 원래 의도와 성령의 의미로 한정하기 위함. 예: 신명기 6:13이 마태복음 4:10에, 이사야 29:13이 마태복음 15:8에, 창세기 2:24가 마태복음 19:5에, 이사야 59:20이 로마서 11:26에 인용됨.

(iv) 적용을 위해: 유형과 성취, 일반과 특수 간의 관련을 위해서. 예: 요나 1:17이 마태복음 12:40에, 이사야 61:1이 누가복음 4:18에, 시편 22:18이 요한복음 19:28에, 출애굽기 12:46이 요한복음 19:33에, 시편 69:25가 사도행전 1:20에 인용됨.

(v) 간결성을 위해 일부 내용 생략. 필요에 맞지 않는 단어라면 생략이 일어난다. 한 예로 스가랴 9:9가 마태복음 21:5에 사용된 경우가 있다.

2. 두 번째 비교 종류는 한 문맥을 다른 문맥과 비교하는 것인데, 이는 유사하거나 상이할 수 있다. 유사한 본문들은 일정 부분, 어투나 표현 양식, 의미 면에서 서로 일치한다. 표현 양식이 일치하는 본문 예로는 창세기 28:12와 요한복음 1:51, 창세기 3:15와 로마서 16:20, 창세기 8:21과 에베소서 5:2가 있다. 그리스어 및 히브리어 콘코던스는 이러한 예를 찾는 데 매우 유용하다. 의미 면에서 일치하는 본문은 동일한 의미를 지니는 구절들을 말한다. 특히 일반 원칙과 그것의 구체적 예의 대비를 주목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잠언 28:13과 시편 32:3, 4, 사무엘하 15:25와 베드로전서 5:6.

유사한 본문에 관해 충분히 살펴보았다. 그에 반해 상이한 본문들은 표현이나 의미 면에서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예: 로마서 3:28과 야고보서 2:24, 열왕기상 9:28과 역대하 8:18, 사도행전 7:14와 창세기 46:27, 사도행전 7:16과 창세기 48:22, 스가랴 11:13과 마태복음 27:9.

V. 성경 해설의 원리

성경은 다루는 본문의 성격에 따라 해석되어야 한다. 본문은 비유적이고 명백한 것, 또는 암호 같고 어두운 것으로 분류할 수 있다.

비유적이고 명백한 본문은 그 뜻이 신앙의 비유와 명확히 일치하는 곳이다. 이 경우 다음 규칙을 따른다: 만약 말씀의 자연스러운 의미가 본문의 환경과 일치한다면, 그 자연스러운 의미가 적절한 의미이다. 예: “선지자들이 다 예수의 이름으로 믿는 자에게 죄 사함을 받게 하심을 증언하였느니라”(사도행전 10:43). 이 본문의 의미는 매우 분명하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믿는 자에게 의로움과 영생을 주신다는 것이다. 이 해석은 신앙의 비유와 성경 전체에 부합하므로 즉시 수용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모든 신앙과 생명에 관한 교리와 구원에 필요한 조항들은 성경에 명료하게 진술되어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암호 같고 숨겨진 본문은 어렵고 모호한 것이다. 이를 해설하기 위해 다음 규칙과 지침을 따른다: 만약 말씀의 자연스러운 의미가 신앙의 비유나 명백한 성경 구절과 명확히 일치하지 않는다면, 유사하거나 상이한 다른 본문들과 비교하고, 본문의 상황과 단어, 다루는 주제의 성격에 부합하는 또 다른 의미가 올바른 의미여야 한다.

이 원리의 중요한 예는 “이는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라”(고린도전서 11:24)를 해석할 때 나타난다. 이 말씀에 대해 여러 해석이 있다. 성찬의 떡이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이며 변환(transubstantiation)에 의해 그렇게 된다는 해석(로마 가톨릭 입장), 혹은 그리스도의 몸이 떡 안에 있거나 아래에 있거나 떡과 함께 있다는 해석(루터파 입장) 등이 있다. 그러나 이 두 해석 중 어느 쪽도 기본적인 신앙의 조항과 일치하지 않는다. 즉, 그리스도가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점과 성찬이 부재하신 그리스도의 몸을 기념하는 성례라는 본질과 모순된다. 따라서 다른 해석을 찾아야 한다.

다른 해석은 이 문맥에서 떡이 몸을 나타내는 표상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사용되는 수사법은 환유법인데, 한 사물의 이름을 관련된 다른 사물에 사용하는 방식이다. 이 해석이 적절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 해석은 두 가지 면에서 신앙의 비유와 일치한다:

1. “그가 올라가셨다”; 그리스도의 몸이 지역적으로 눈에 보이게 땅에서 하늘로 들려 올라갔다. 그러므로 그 몸이 성찬에서 입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늘에서 영접하는 것이다.

2.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 그리스도는 참되고 자연스러운 몸을 가지셨으며, 몸은 길고 넓고 두텁고 특정 한 곳에 앉아 있고 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성찬의 떡이 실제 몸일 수 없고 오히려 그 몸의 표상이거나 보증이어야 한다.

둘째, 이 해석은 본문 상황과도 일치한다(고린도전서 11:23-26).

1. “그가 취하시고... 떼셨다.” 그리스도께서 제자들 가운데 앉아 자신의 몸을 손으로 취하여 떼셨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떡은 따라서 표상과 인장일 뿐이어야 한다.

2. “... 너희를 위하여 떼었다.” 떡이 우리를 위하여 주어진다고 할 수 없으며, 주어진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러므로 떡은 본질적으로 몸이 아니고 상징적이거나 표지로서 그러하다.

3. “잔은 새 언약이다”라는 말은 문자적으로가 아니라 환유법(metonymy)으로 이해해야 한다. 이러한 경우라면 “이것은 내 몸이다”라는 말씀에도 환유법이 사용되지 않았다는 이유가 없다.

4. 그리스도 자신은 떡을 먹었지만, 자신을 먹은 것은 아니다.

5. “이것을 나를 기념하여 행하라”는 말씀은 그리스도가 입에 육체적으로 임재하심이 아니라 마음의 믿음에 영적으로 임재하심을 전제로 한다.

6. “그가 오실 때까지”라는 말씀은 그리스도가 몸으로서 부재함을 전제로 한다.

7. 그리스도는 떡의 형상 아래 있거나 떡 안에 있다는 말씀을 하지 않고, “이것(즉 이 떡)이 내 몸이다”라고 말씀하셨다.

셋째, 이 해석은 성례전(sacrament)의 본질과 일치하는데, 성례전에서 표(sign)와 표상된 것 사이에는 적절한 관계와 유사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떡이 문자적으로 몸이 되면 그것은 불가능하다.

넷째, 이 해석은 다른 성경 용례(예: 창 17:10, 11; 고전 10:4; 롬 4:11; 출 12:11; 행 22:16; 요 6:35; 고전 10:16)와도 일치한다.

다섯째, 이 해석은 논리 법칙과도 부합한다. 본질적으로 다른 것(떡과 몸 같은)은 비유적 표현이 아니라면 이렇게 동일시될 수 없다.

여섯째, 이 해석은 일상 언어 사용과도 맞아떨어진다. 고대 세계에서 로마 치안관 앞에 들고 다니던 법봉(fasces, 막대기 다발)은 정부 자체의 상징으로, 홀은 왕국의 상징으로, 관복은 평화의 상징으로, 월계관은 승리의 상징으로 사용되었다. 떡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이와 유사한 비유적 표현이다.

이러한 해석 규칙으로부터 성경 해석에 관한 여러 중요한 함의가 도출된다.

함의

1. 경우에 따라 신앙의 유비와 문맥의 상황 및 말씀에 일치하는 범위 내에서 본문에 누락된 단어를 보충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러한 사례는 출 4:25, 19:4; 삼하 21:16; 눅 13:9; 고전 9:25에서 확인할 수 있다.

2. 본문의 다른 해석이 명사(또는 이름) 하나를 다른 것으로 대체할 때, 이는 비유적 표현이 사용되었음을 시사한다. 다음과 같은 일반 원칙이 도움이 될 수 있다:

(i) 의인화(anthropomorphism)는 인간에게 적합한 것을 하나님을 묘사하는 데 사용하는 은유적 언어 사용이다. 예를 들어 하나님의 ‘영혼’은 그의 생명 또는 본질을 의미한다: “내 영혼이 이런 민족에게 반드시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렘 5:29, Geneva Bible). ‘머리’는 그분의 우월성을 나타낸다: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니”(고전 11:3). 하나님의 ‘얼굴’은 은총이나 진노를 가리킨다: “주의 얼굴을 숨기셨으니 내가 곤고하였나이다”(시 30:7);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대적하시느니라”(시 34:16). ‘눈’은 보통 그의 은혜와 섭리를 뜻한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주목하시고”(시 34:15). ‘눈동자’는 특히 귀중한 대상을 의미한다: “너를 만지는 자는 다 눈동자를 만지는 자로다”(속 2:8). ‘귀’는 하나님의 우리의 기도 듣는 능력을, ‘콧구멍’은 분노를, ‘손’은 능력과 보호를, ‘팔’은 강함과 용기를, ‘오른손’은 최고 권위를, ‘손가락’은 덕을, ‘발’은 통치와 권위를 상징한다(예: 시 110:1). ‘냄새

말씀'은 받아들임을 의미한다: “여호와께서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줄 아셨더라”(창 8:21). ‘회개’는 하나님이 행하는 상황과 행동의 변화를 의미한다.

(ii) 성례전적 언어, 즉 성례적 환유법은 표(sign)가 그것이 가리키는 대상을 뜻하거나 그 반대의 용법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선악과의 나무는 선악을 상징하는 나무를 의미한다. 할례는 언약이자 언약의 표라고 불린다(창 17:10, 11).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려 하자 중단시킨 모리아산의 장소와 그곳에 잡힌 숫양은 ‘여호와 이레’라 불리며, 이는 하나님께서 보시고 예비하심을 나타내는 표가 되었다(창 22:14). 야곱이 꿈에서 하늘에 닿는 사다리를 본 날 밤 돌을 베개로 쓴 곳은 ‘벧엘’, 즉 ‘하나님의 집’이라 불렸다(창 28:22). 표는 표상하는 것과 동일시된다. 이와 같이 유월절 어린 양은 ‘넘어감’을 상징하며(출 12), 제단은 “여호와와 나의 깃발”(출 17:15), 예루살렘은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계심”(겔 48:35)이라 불린다. 제사장은 ‘속죄’한다(레 16).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부른다(요 1:29). 유월절 어린 양은 그리스도를 가리키며(고전 5:7), 같은 구절에서 신자들은 ‘누룩 없는 자들’이라 한다. 그리스도는 화목제물(hilasterion), 즉 언약궤의 덮개라 불린다(롬 3:25). 신자들은 ‘한 떡’(고전 10:17)으로 불리며, 바위는 그리스도(10:4)라 한다. 세례는 중생의 씻음(Tit 3:5), 잔은 ‘새 언약’이라, 떡은 그리스도의 몸(고전 11:24-25)이라 한다. 이처럼 표는 표상된 것과 같다고 하지만, 이는 표가 그것이 나타내는 실재를 대신하는 비유적 표현임을 전제로 한다.

(iii) ‘그리스도의 속성 교통’(communication of the properties)이란 인성에 적합한 속성이 신성에 귀속되는 현상으로, 부분과 전체를 상호 대체하는 환유법(synecdoche)에 해당한다. 신성과 인성이 결합된 한 인격 안에서 본질적으로 한 쪽 인성에만 속한 것이 전체 인격에 귀속되어 말해지는 것이다. 예를 들어 “그가 자기 피로 산 교회를 치리하노라”(행 20:28), “하늘로 오르신 이는 오직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이시니라”(요 3:13), “그리스도의 주를 알았다면 저희가 주를 못 박지 아니하였을 터”(고전 2:8),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아브라함 이전에 있느니라”(요 8:58), “예수의 자라시며 지혜가 자라시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을 더하시니라”(눅 2:52) 등이 있다. 이 속성 교통은 구체적인 인격 즉 하나님, 인간, 그리스도에만 적용되며, 추상적으로는 각각의 본성(신성 또는 인성) 단독으로 고려될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

(iv) 하나님에 대한 진술이 악에 관여함을 함축한다면, 이는 하나님의 허용하심(작용 허락)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이는 구약에서 흔히 나타난다. 예컨대 “주의 종들에게 세운 왕들로 인하여 죄악으로 심히 고생하였사오며 그들이 자기 뜻대로 내 육축을 다스렸고 우리가 큰 환난 가운데 있나이다”(느 9:37), “여호와께서 곱은 뜻을 그 가운데 섞으사 이집트가 그 모든 사업에 미혹되게 하셨도다”(사 19:14),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출 11:10). “여호와 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네 손에 넘기셨느니라”(신 2:30), “여호와께서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이스라엘과 싸우게 하시고, 그들을 진멸하시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멸하시려 하셨느니라”(수 11:20), “그들이 아비의 음성을 순종치 아니한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시려 하심이라”(삼상 2:25), “아하시아의 망하는 것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더라”(대하 22:7, Geneva Bible), “그가 그들의 마음을 돌려 자기 백성을 미워하게 하며 자기 종들을 속이게 하였도다”(시 105:25), “만일 선지자가 무슨 말을 하게 되면 내가 여호와인 즉 그 선지자를 꼬드겨 내 백성 이스라엘 중에서 멸하리라”(겔 14:9) 등이 그러하다. 신약에서도 “하나님이 그들을 생각이 천박한 마음에 내버리셨다”(롬 1:28), “하나님이 미혹의 강한 역사로 그들로 거짓을 믿게 하시리라”(살후 2:11) 등이 있다.

(v) 어떤 사물을 이미 완료된 것처럼 표현할 때도 있다. 실제로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러한 표현은 이미 시작되어 예정된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나타낸다(예: 창 5:32, 11:26; 왕상 6:2, 37; 시 119:8). 이와 같이 눅 1:6과 빌 3:12, 15 등의 진술 방식을 이해할 수 있다.

(vi) 특정 죄를 이름으로 언급하는 도덕적 명령이나 법률은 동일한 종류의 모든 죄와 그 원인 및 기회, 그리고 우리를 그 죄로 유혹하는 모든 것을 함축한다. 또한 이들은 반대되는 덕목도 명령한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산상수훈에서 도덕법을 해석한 방식이다(마태복음 5:21-48 참조). 요한도 같은 원리를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자라”고 기록하면서 보여 준다(요한 1서 3:15).

(vii) 위협과 약속은 일반적으로 특정한 조건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그 성취 여부는 이에 대해 믿음과 회개가 있는지에 달려 있다. 이는 특히 일부 본문에 해당하지만, 징계와 십자가는 이 규칙의 예외이다(예: 에스겔 33:14-15; 요나 3:4; 요한계시록 21:18). 사건 자체의 진행에서 위협이나 약속이 조건부로 이해되어야 함이 분명해진다(예: 예레미야

18:9-10). 이와 유사한 예로 이사야 38:1과 창세기 20:3이 있다. 여기서 명백히 하나님의 뜻의 실행이 개입되어 있으므로, 스콜라 신학자들이 하나님의 표상적 의지(signifying will)와 선의 의지(will of his good pleasure)를 구별했던 것이다. 선의 의지는 어떤 조건 없이 절대적이고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으로, 예컨대 세상을 창조하고 다스리시며 자신의 아들을 보내시는 것 등을 뜻한다. 반면 표상적 의지는 어떤 다른 대상에 관한 조건을 전제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첨가된 조건이 하나님의 의지 존재를 가리키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의지를 가지셨다고 말할 수 있다.

(viii) 하나님의 한 위격을 가리키며 사용된 최상급 또는 배타적 표현은 다른 위격들을 배제하지 않는다. 그것은 오직 참 하나님이 대적하는 피조물과 거짓 신들을 부인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예수께서 아버지를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오직 모든 거짓 신들과 대조하기 위한 것이다(요한복음 17:3). 마가복음 13:27, 로마서 16:27, 디모데전서 1:17 등도 이와 유사한 예를 보여 준다. 요한복음 10:29는 명백한 예인데, “내 아버지께서 만물보다 크시다”는 표현은 삼위일체의 다른 위격보다 크다는 뜻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보다 크다는 뜻이다. 삼위일체의 모든 외적 사역과 신적 속성은 포괄적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어느 위격에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ix) 하나님이 절대적이거나 자기 자신을 가리켜 언급될 때는 삼위일체 세 위격 모두를 뜻한다. ‘하나님’이 삼위일체의 다른 위격과 함께 사용될 경우에는 아버지를 의미한다(예: 고린도후서 13:13).

(x) 일반적 용어가 특정한 의미를 가지기도 하고, 반대로 특정 용어가 일반적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모든(all)’이 ‘많은(many)’을 뜻할 수 있고, ‘많은’이 ‘모든’을 의미할 수 있다는 점은 아우구스티누스가 분명히 했다. 성경 곳곳에서 자주 이를 볼 수 있다(예: 창세기 33:11; 출애굽기 9:6; 신명기 28:64; 열왕기상 12:18; 예레미야 8:6, 26:9; 마태복음 4:23, 21:26; 요한복음 14:13; 고린도전서 6:12; 빌립보서 2:21). ‘아무것도 없음(nothing)’은 ‘적음’ 또는 ‘소량’을 의미할 수 있다(요한복음 18:20; 사도행전 27:33). ‘없음(none)’이 ‘소수’를 뜻할 때도 있다(예레미야 8:6; 고린도전서 2:8). ‘항상(always)’은 ‘자주’, ‘오래’를 의미할 수 있다(잠언 13:10; 누가복음 18:1, 24:53; 요한복음 18:29). ‘영원한(eternal)’은 문맥에 따라 ‘오랜 시간’을 뜻할 수 있다(예: 창세기 17:8; 레위기 25:46; 신명기 15:17; 역대상 15:2; 이사야 34:6; 다니엘 2:4; 예레미야 25:9). ‘도처(everywhere)’도

‘여기저기’를 의미할 수 있다(마가복음 16:20; 사도행전 17:30). 부정어는 종종 특정한 한 사안에 한정하여 이해된다(예: 시편 7:4; 요한복음 9:3). ‘아니다(not)’는 ‘드물게’, ‘거의 없다’, ‘거의 ~ 아니다’를 의미할 수 있다(열왕기상 15:5; 누가복음 2:37).

3. 단어의 문법적 및 수사학적 속성은 다양한 의미의 뉘앙스를 드러낸다. 생략(ellipsis; 한 단어 이상이 결여된 경우)은 간결함을 나타내거나 깊은 정서 표현일 수 있다(창세기 3:22, 11:4; 출애굽기 22:20, 23; 역대상 4:10; 시편 6:3; 사도행전 5:39). 과거 시제를 미래 사실의 확실성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는 것은 미래에 일어날 일이 확실함을 의미한다(창세기 20:3; 이사야 9:6, 21:9). 다중어 반복(pleonasm; 단어 또는 구의 중복)이 단순 반복인 경우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다: (i) 힘과 강조로서 단어가 일반적 의미 이상을 가리킴(시편 133:2; 누가복음 6:46), (ii) 다수(창세기 32:16; 요엘 3:14), (iii) 분배(레위기 17:3; 역대상 26:13; 역대하 19:5), (iv) 다양성과 변화(시편 12:2; 잠언 20:10).

어떤 명사가 다른 명사에 의해 수식될 때 나타나는 다른 형태의 다중어 반복은 단수일 때 매우 중요하며 확실성을 주장한다(출애굽기 31:15; 미가 2:4). 복수일 경우 탁월함을 뜻하는데, 예를 들어 아가서의 ‘종 중의 종’(시편 136:2; 전도서 1:2 참조)이 그렇다. 형용사(가끔 명사도)의 다중어 반복은 과장 또는 증대를 의미한다(출애굽기 34:6; 잠언 6:10; 이사야 6:3; 예레미야 7:4, 22:29, 24:3; 에스겔 21:28). 동사의 다중어 반복은 말의 강조와 중요성을 높이거나 격렬함, 확실성, 신속함을 나타낸다(창세기 2:7, 46:4; 출애굽기 13:17; 사무엘하 15:30; 열왕기하 5:11, 8:10; 시편 50:21, 109:10; 잠언 27:23; 이사야 6:9, 50:2, 55:2, 56:3; 예레미야 12:16, 33:39). 접속사의 다중어 반복은 간절함을 나타낼 수 있고(에스겔 13:10), 접속사의 중복은 부정의 강도를 높인다(예: 출애굽기 14:11; 마태복음 13:14).

문장 전체의 다중어 반복은 첫째, 분배를; 둘째, 강조를; 셋째, 다른 말로 문장을 반복하여 해설함을 의미한다(에스겔 46:21; 출애굽기 12:50; 시편 124:1, 145:18; 열왕기하 20:3; 시편 6:9-10; 이사야 3:9; 요한복음 1:3). 모든 수사법은 기능상 강조적이며, 말씀의 의미를 확대한다. 또한 문학적·미적 즐거움을 제공함과 더불어, 예를 들어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 또는 하나님의 교회를 대신하는 표현으로 사용될 때 믿음을 양육하는 역할도 수행한다(마태복음 25:35; 사도행전 9:4). 이는 믿음 있는 영혼에게 큰 위로와 믿음의 양육이 된다.

반어(실제 의미와 반대인 표현, 때로는 조롱의 맥락에서)는 종종 죄에 대한 책망을 내포한다(사사기 10:14; 열왕기상 18:27, 22:15; 마가복음 7:9; 고린도전서 4:8). 단어나 음의 반복을 수반하는 수사법은 강조를 위한 것이다(시편 67:5-6; 이사야 48:11; 요한복음 1:51). 시편 136편에서는 모든 구절마다 반복이 사용된 놀라운 예가 있다.

질문은 여러 의미를 갖는데, 강한 긍정(창세기 4:7, 37:13; 여호수아 1:9; 열왕기상 20:27; 마가복음 12:24; 요한복음 4:35, 6:7, 10:13), 부정(창세기 18:4; 마태복음 12:26; 로마서 3:3), 금지(사무엘하 2:22; 시편 79:10), 감탄·연민·불평·비판 등의 감정 드러냄(시편 8:10, 22:1; 이사야 1:21)이 그것이다. 양보는 부정과 책망을 나타낸다(고린도후서 12:16-17 참조).

4. 성경의 명백한 모순은 어휘가 같더라도 다루는 대상이 다르거나 서로 다른 측면·관점·시간대를 다룸을 인식함으로써 흔히 해결된다. 예를 들어 시편 7:8(“나를... 내 의에 따라 판단하소서”)과 이사야 64:6(“우리 모든 의는 더러운 옷과 같도다”) 간의 겉보기 모순은 서로 다른 관심을 다루는 데서 해소된다. 전자는 사건의 정당성에 관한 것이고, 후자는 개인의 의에 관한 것이다. 시편 7은 전자를, 이사야 64는 후자를 말한다. 마태복음 10:9-10(“금이나 신,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과 마가복음 6:8-9(“지팡이 외에는 아무 것도 가지지 말라... 신은 신으라”)도 마찬가지다. 여기서 두 본문은 상충하는 것처럼 보이나, 마태복음은 지팡이를 짚어지는 이들에게 부담으로, 마가복음은 야곱이 사용한 것과 같이(창세기 32:10) 여행 중 지탱하고 편안하게 해 주는 지팡이의 유용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 또한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신발은 여행을 위해 새롭게 준비한 새 신발이다. 반면 마가복음의 신은 새 것이 아니라 평소 신던 샌달이다. 성경 구절들의 조화를 위해서는 여러 조건과 유의점이 필요하다.

(i) 성경 저자들은 종종 자신의 기록 시대 및 장소의 풍습에 따라 과거 장소와 인물을 언급한다. 예를 들어 창세기 12:8의 “그가 거기서 벳엘 동쪽 산으로 옮겨 거주하였다”는 말은, 모세 시대에는 그곳이 벳엘이라 불렸으나 아브라함 시대에는 루스라 불렸던 것을 반영한다(창세기 28:19).

창세기 13:1은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올라 ... 남쪽으로 갔다”라고 기록한다. 여기서 ‘남쪽’은 ‘애굽으로부터 남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기록할 당시 모세가 있던 곳을 기준으로

한 남쪽이다. 다시 말해, 베드로가 쓴 서간에서 그리스도께서 그의 영으로 옥에 갇힌 자들에게 전파하셨다(벧전 3:19)고 하는데, 이는 노아가 살던 시점이 아니라 베드로가 편지를 쓴 당시를 가리킨다. 또한 족장들의 문맥에서 시편 105:15는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해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경험은 다윗 시대의 의식 관습에 근거하여 설명되고 있다. 족장들은 외적인 기름부음을 받지 않았다.

(ii) 우화 혹은 문학적 상징으로 표시된 구절은 문맥의 범위와 초점에 따라 해석되어야 한다. 이에 크리소스토무스는 마태복음 8장에 관하여 “비유는 문자대로 해석해서는 안 되며, 그렇게 하면 많은 부조리가 발생한다”고 말한다. 마찬가지로 어거스틴은 시편 8장과 관련하여 “모든 우화에서 이 규칙을 지켜야 하는데, 즉 우화로 표현된 현재 지문의 목적에 따라 해석해야 한다”고 한다.

(iii) 성경 내 동일한 장소와 인물이 서로 다른 이름으로 불릴 수 있다. 기드온은 예루바알(삿 6:32)과 예루브벨셋(삼하 11:21)으로 불렸다. 동일한 이름이라도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어, 룯기 4:21의 ‘살몬’은 역대하 2:11에서 ‘살마’[솔로몬]로 불린다. 한편, 서로 다른 인물이나 장소가 동일한 이름을 공유하는 경우도 있다. 마태복음 족보의 첫머리에서 “요시아가 포로로 끌려가기 전후에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고, 포로 생활 중 여고냐가 스알디엘을 낳았다”(마 1:11-12)고 하는데, ‘여고냐’라는 이름은 족보를 세 그룹으로 나누었을 때 두 번째 그룹의 마지막과 세 번째 그룹의 첫머리에 모두 등장한다. 만약 동일 인물이라면 두 번째나 세 번째 그룹 중 하나에는 13명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아버지와 아들로써 두 사람이 ‘여고냐’라는 이름을 공유한다면 이 문제가 해결된다. 숲훗(Succoth)도 성경에 세 곳이 있다. 첫째는 애굽(출 12:37), 둘째는 갓 지파 땅(수 13:27), 셋째는 므낫세 지파 땅(왕상 7:46)이다.

(iv) 때로는 죄악에 빠진 통치자의 이름이나 그가 악을 행한 연수가 누락되기도 한다. “사울이 이스라엘을 이 년 동안 다스렸다”(삼상 13:1)는 것은 법적으로, 또는 리라가 말하는 바와 같이 법률상(de jure)으로만 유효하며, 실제로는 더 오래 다스렸다. 또한 마태복음 1:8에는 야하시야, 요아스, 아마사라는 세 왕이 악행 때문에 생략된 사례가 있다.

(v) 기간은 완전한 형식이거나 불완전한 형태로 기록되며, 포괄적으로 포함하거나 배제하는 방식으로 산정될 수 있다. 열왕기상 15:25과 15:28에 이런 예가 있다. 아사의 둘째 해에

즉위한 나답은 두 해 동안 다스렸다고 할 수 있지만, 바사는 아사의 셋째 해에 즉위했다. 왕의 마지막 '해'는 완전한 1년이 아니었으니, 때로 마지막 '해'는 한 달 내외였을 가능성도 있다. 그 해의 나머지 기간은 후임자의 '완전한 해'로 계산된다. 또한 마태복음 17:1과 누가복음 9:28을 비교할 때 연대상의 모순처럼 보이나, 마태는 온전한 날만 계산한 반면 누가는 그 앞뒤의 일부 단편 일수도 포함시켰음을 알면 충돌이 해소된다. 따라서 마태의 '6일'과 누가의 '약 8일'은 실질적 모순이 아니다. 기간 계산 방식이 때로는 포함 기준에 따라 달라지는데, 어거스틴은 출애굽기 주석에서 “‘완전수’에서는 부족하거나 과잉인 부분은 종종 포함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마을들, 아로엘과 그 마을들에 거주한 지 삼백 년 동안”(삿 11:26)이라 기록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이후 기간을 다음과 같이 계산하면,

광야 방황: 40년

여호수아 통치: 17년

옥니엘 통치: 40년

에훗과 삼가르 통치: 80년

바락 통치: 40년

기드온 통치: 40년

아비멜렉 통치: 3년

돌라 통치: 23년

야일 통치: 22년

총합은 305년이다. 300년으로 둔갑한 것은 단지 간편함 때문이며, 초과된 5년은 언급되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간결함을 위해 “그날 베냐민에서 죽은 자가 2만 5천 명이었다”(삿 20:46) 할 때(삿 20:35 참조) 백 명의 베냐민 사람은 포함되지 않았다.

(vi) 구약 역사 서술 해석에서 또 다른 고려사항은, 왕이 전쟁, 고령, 질환 등으로 국가 통치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살아 있는 동안 아들을 공동 왕으로 세우는 사례가 있다는 점이다. 이런 공동 통치에서는 부자 간 통치 연수를 중첩 계산하는 경우가 있고, 각자 개인 통치 연수만 계산하는 경우도 있다. 이로써 열왕기하 1:17과 3:1의 연대 차이가 설명될 수 있다. 여호사밧은 통치 17년째에 아합 왕과 시리아에 맞서 싸우기로 결심하며 아들 요람을 부왕으로 세웠다. 여호사밧 통치 18년째가 요람의 두 번째 해이자 아합의 아들 요람이 왕위에

오른 해이다. 이후 요람 5년째에 노령으로 쇠약해진 여호사밧은 왕권을 확실히 요람에게 넘겼으며, 요람은 '8년간 다스렸다'고 기록된다. 이는 부친 재위 중 4년, 부친 사후 단독 통치 4년을 합친 것이다. 또 열왕기하 15:30(요담 20년 통치)과 15:33(16년 통치) 간의 차이도 마찬가지로 해소된다. 요담은 부친 웃시야 사후 16년간 단독으로 다스렸으나, 부친이 나병에 걸려 통치하지 못할 때 4년간 공동 통치했으므로 총 20년이 된다.

(vii) 고대 근동에서는 하루를 인위적으로 12시간으로 나누었고(통상 '행성 시'라고 부름, 요 11:9 참조), 하루 12시간을 다시 시작 시간의 숫자로 구분하는 4분할 체계를 사용하였다. 이로 인해 마가복음 15:25에서 예수께서 '제삼시(세 번째 시간, 오전 9시경)'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 기록한 것과 요한복음 19:14에서 빌라도가 예수를 유대인에게 내놓을 때 '이미 제육시 즈음(정오 무렵)'이었다는 기록이 조화를 이룰 수 있다. 이 두 시간은 서로 다른 시간 체계를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예수께서는 제삼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골고다에 옮겨진 시점은 제육시 즈음이었다는 설명이 가능하다.

(viii) 작은 숫자는 더 크고 완전한 수에 포함되어 있다. "그 땅이 평안을 누린 지 사십 년이 되니 옥니엘이 죽었다"(삿 3:11)는 기록은 여호수아 사망 이후 옥니엘이 죽을 때까지의 기간과 시리아의 8년 압제 기간을 모두 포함한다. "그 땅이 팔십 년 동안 평안하였다"(삿 3:30)는 구절은 옥니엘 사후부터 에훗과 삼가르의 기간까지를 포함한다. 에훗이 80년 동안 사사였다는 것은 불가능하므로(수명을 넘는 기간임) 팔십 년이라는 표현은 해당 시기 전체를 가리킨다. 이와 유사한 예는 삿 5:31, 8:28, 9:22, 10:2-3, 11:26에도 나타나는데, 광야 40년 방황이 300년 안에 포함되어 있다.

(ix) 아들 됨(sonship)은 자연적 아들 됨과 법률적 아들 됨으로 나뉜다. 자연적 아들 됨은 혈연에 의한 것이며, 법률적 아들 됨은 입양과 이에 따른 교육·양육, 왕국 계승, 그리고 레위인 속자법에서의 구속에 의해 입증된다(신 25:5 참조).

5. 본 원칙들을 참고하여 본문의 자연스러운 의미를 결정할 수 있을 때에는, 의미 범위가 열려 있는 단어는 문맥상 가장 적합한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히브리어 접속사 '와우(waw)'는 문맥에 따라 '그러나', '~때문에', '확실히', '즉',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등 여러 방식으로 번역될 수 있다. 다시 말해, 히브리어 단어

barak은 축복하다와 저주하다라는 정반대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욥기 1:5; 열왕기상 21:10 및 11:2, 9). 창세기 4:26에서 사용된 chalal은 때때로 ‘속되다’라는 의미를 지니지만, 여기서는 ‘시작하다’를 뜻하는데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i) 속되다라는 뜻일 경우 통상적으로 지배하는 명사와 결합되어야 하는데, 여기서는 곧바로 동사의 부정사형인 qara(부르다)가 뒤따르기 때문이다. (ii) 모세는 하나님의 예배의 속됨을 홍수의 원인으로 삼지 않았으며, 만약 하나님 백성들 사이에 그것이 만연했다면 분명히 언급되었을 것이다.

6. 우리 영어 성경에서는 때때로 여백에 헬라어나 히브리어 단어가 표기되어 본문 필사본들 사이에 변이가 있음을 나타낸다. 올바른 본문은 다음 조건에 부합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i) 문법적 구성 및 다른 신뢰할 만한 필사본과 일치하는 것, (ii) 문맥과 본문의 취지에 합당하며 신앙의 비유(analogy of faith)와 조화를 이루는 것. 이 해석 원리를 언급하는 이유는 린다누스(Lindanus)와 로마 교회가 주장하듯 히브리어 및 헬라어 본문이 유대인들의 악의적인 행위로 훼손되었다고 생각해서가 아니다. 단지 본문 필사 과정에서 기술 부족이나 부주의로 여러 본문 변이가 생겨났을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 올바른 본문을 판별하기 위함이다.

예를 들어, 히브리어 본문의 대다수 사본에서는 시편 22:16이 kaari로 되어 ‘사자가 내 손과 내 발을’이라 읽히지만, 일부 히브리어 사본에서는 kaaru로 되어 ‘그들이 내 손과 내 발을 파내었(혹은 꿰뚫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 원칙에 따르면 후자가 옳은데, 이는 (i) 문법적 구성과 일치하며, (ii) 시편의 상황 및 맥락과 부합하고, (iii) 유대인들 자신도 인정하는 몇몇 고대 사본과 일치하기 때문이다.

VI.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취급함

지금까지 우리는 성경 해석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제 ‘올바른 절단’ 또는 ‘분별’에 관해 살펴볼 것이다. 올바른 절단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는 데 사용되는 방법이다: “네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일꾼으로서 부끄러움이 없도록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분별(비단 절단)하라”(딤후 2:15). 여기서 ‘절단’이라는 표현은 아마도 제물을 조심스럽게 절단하는 레위인들의 행위에서 유래한 은유적 언어일 것이다. 메시아도 이 기술을 언급하였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가르침을 주사 내게 입을 열어, 수고하는 자를 힘있게 할 말씀을 주셨나니, 피곤한 자에게 제 때에 말할 수 있게 하려 하심이라”(사 50:4).

여기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 (i) 해체(분해)와 (ii) 적용.

해체(분해)

해체란 본문을 여러 교리로 풀어내는 것으로서, 직조공의 그물을 풀고 푸는 것과 유사하다. 아볼로는 이 능숙함을 가진 이의 예이다: “그가 담대히 율법과 선지자로부터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명하여 유대인 앞에서 세계 논쟁하니”(행 18:28). 때때로 교리는 본문에 명시적으로 제시된다. 신약성경이 구약을 인용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우리가 전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거짓말 아래 있다고 명령하였노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으며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였느니라”(롬 3:9-11). 또 다른 예는 사도행전 2:24-27절이다.

그 밖에도 본문에 명확히 드러나지 않은 교리를 본문에서 여러 측면으로 함축하여 정확히 도출하는 경우가 있다. 성경 자체에서 이러한 사례를 여러 차례 볼 수 있다.

| 성경 구절 | 본문에서 도출한 암시 |
|------------|--|
| 요 10:34-36 | “너희 율법에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고’(성경은 폐할 수 없다)라 기록된 것이 아니냐?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세상에 보내신 이를 |

| | |
|-----------|---|
| | ‘당신은 신을 모독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
| 고전 9:9-4 | “모세 율법에 ‘밭을 밟는 소에 멍에를 씌우지 말라’고 기록되었으니, 하나님이 짐승을 걱정하느냐?” |
| 갈 3:9-11 |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았으며, 율법의 행위에 속하는 자들은 저주 아래 있음이라.” |
| 히 8:8, 13 | “주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와 새 언약을 맺으리라 하셨고, 옛 언약은 폐하여 없어질 것이다.” |

교리를 밝힐 때 윤리적·경제적·정치적·일상적 또는 비범한 사례라도 각 영역 내에서 일반 법칙의 효력을 가진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바울도 “이 모든 일은 우리 교훈을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고전 10:11)고 하였다. 논리학상의 원리로서 속(genus)이 모든 종(species)에 포함되며, 시각 인식의 법칙으로 일반적 속성이 개별적 속성보다 먼저 인지된다는 사실도 고려할 사항이다.

예를 들어:

| 본문 | 말씀(내용) | 도출 교리 |
|-----------|--|------------------------------------|
| 롬 9:7-10 |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다 그의 자녀가 아니며, ‘이삭에게서 난 자를 네 씨라 칭할 것’이라 했고, 우리 조상 이삭도 단 한 사람에게서 잉태되었다” | 약속의 자녀만 참 자녀이며, 혈통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
| 롬 4:18-24 | “아브라함은 약속이 마치 불가능한 듯 믿었으나,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분임을 믿었기에 의로 여김을 받았다” | 믿음으로 의와 생명이 주어진다 |

그러나 교리는 본문에서 진정한 의미를 바르게 해석할 때에만 도출 가능하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 어느 구절에서든 임의의 교리를 이끌어낼 우려가 있다.

예를 들어 잠언 8:22 해석의 오류가 있다. 이 구절에서 지혜(즉 그리스도 자신)가 자기 자신에 대해 말하는데, 구약 칠십인역(Septuagint)에서는 “주께서 나를 창조하셨다”라고 번역된다. 이를 근거로 아리우스파는 아들이 창조된 존재라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히브리어 원문은

“주께서 나를 소유하였다”(히브리어 동사 qanah)고 하였으며, 이는 아버지가 영원부터 아들에게서 아들을 낳으셨고, 아버지가 아들 안에 계시며 아들이 아버지 안에 계시기에 아들을 ‘소유’한 것임을 의미한다. 이러한 용례는 아담에게 아들이 태어났을 때 “내가 여호와로부터 한 사람을 얻었다”라고 한 데서도 나타난다(창 4:1; 또한 여기서도 히브리어 동사 qanah). 이 오류는 헬라어 본문 필사 시 우연한 혹은 고의의 오기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어거스틴은 시편 39:10 “내가 잠잠하였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하셨음이라”를 해석하며, 말할 입이 주어진 자가 침묵하는 것을 이상히 여겼다. 그러나 원문 헬라어나 히브리어에는 ‘나(me)’라는 단어가 없다. 시편 72:14 해석에서 그는 대금업 이자 문제를 다루며 그것이 죄임을 증명했으나, 본문에는 이런 내용이 없다. 본문은 “압제로부터 생명을 구원하시고 그의 피가 주의 보기에 귀하리로다”라고 기록되어 있을 뿐이다.

또한 유추(analogy)나 우화(allegory)를 발전시키는 것도 정당하다. 이는 서로 닮은 사물에서 도출하는 논증으로, 바울도 이를 자주 사용했다(예: 고전 9:9). 그러나 다음과 같은 주의점이 있다:

1. 절제되고 냉철하게 사용해야 한다.
2. 주제에 적합하며 억지스럽지 않아야 한다.
3. 간결하게 언급되어야 한다.
4. 교리를 증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 교훈 제공을 위해 쓰여야 한다.

성경 본문에서 올바른 해석으로 도출된 교리는 그 자체 권위를 근거로 신뢰할 만하다.

“알렉산드리아 출신으로 말솜씨 좋고 성경에 능한 유대인 아블로가 에베소에 이르니 ... 유대인 앞에서 담대히 논쟁하여 율법과 선지자들로부터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명하였다”(행 18:24, 28).

이로부터 다음과 같은 결론이 따른다:

1. 철학자나 교부 등의 인간 증언에 우리의 믿음을 의존해서는 안 된다. 어거스틴은 시편 66편 해석에서 “내가 말해도 아무도 듣지 말고, 그리스도가 말한다면 듣지 않는 자에게 화 있을지니라”고 하였으며, “누가 ‘내가 말한다, 그가 말한다’가 아니라 ‘주께서 말씀하신다’를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청자의 양심을 설득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바울도 아레오바고스에서 “우리 삶과 움직임이 그 안에 있음은 너희 시인도 말한 바 ‘우리는 그의 자손이니라’”(행 17:28-29)고 인용하였다. 또한 메난드로스의 “악한 친구는 좋은 습관을 망친다”(고전 15:33), 에피메니데스의 “그들 중 한 예언자가 ‘크레타인은 항상 거짓말장이요 악한 짐승이며 게으른 대식가’라 하였다”(딤후 1:12)를 인용하기도 했으나, 이러한 세속 작가 인용은 절제되어야 하며, 실제 성경 전례에서는 그 작가 이름을 생략하는 경우가 많다.
2. 교리를 증명할 때에는 성경 증언을 몇 개만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때로는 전혀 필요하지 않다.
3. 이와 같이 가르침을 전하는 선지자는 다른 선지자에게 비판받지 않는다(고전 14:32, 37 참조).

VII. 사용과 적용

적용은 성경에서 올바르게 도출된 교리를 그 장소와 시간의 상황과 회중의 성도들에게 적합한 방식으로 다루는 기술이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강해의 접근법이다: “내 양 떼를 먹이며 누이게 하리라”고 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잃어버린 것을 찾고 쫓긴 것을 돌아오게 하며 상한 것을 싸매고 아픈 것을 강하게 하리라’”(겔 34:15, 16). “누구는 긍휼히 여기되 차별하여 어떤 자는 두려워하여 불에서 꺼내며”(유 22, 23).

적용의 기본 원리는 해당 본문이 율법 진술인지 복음 진술인지 아는 것이다. 말씀을 전할 때 율법과 복음은 각각 다르게 작동하기 때문이다. 율법은 죄라는 병을 드러내고, 그 결과 죄를 자극하고 일깨우지만, 그 자체로는 치유책을 제공하지 않는다. 반면에 복음은 무엇을 행해야 하는지를 가르칠 뿐 아니라 성령의 능력도 함께 온다. 우리가 그에 의해 중생할 때 복음을 믿고 그 명령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힘을 받는다. 그러므로 교육의 순서에서 율법이 먼저이고, 그 다음이 복음이다.

율법의 진술은 완전한 내적 의로움에 대한 필요성, 율법의 행위를 통해 주어지는 영생, 율법에 반하는 죄들과 그에 대한 저주를 나타낸다.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는 다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한 바 ‘율법 책에 기록한 모든 것을 항상 지키지 아니하는 자마다 저주는 그에게 있으리라’ 하였음이라.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으니 율법으로 의롭게 될 자는 없느니라”(갈 3:10). “독사의 자식들아! 장래의 진노를 피하라고 누가 경고하였느냐 ... 지금 도끼가 나무 뿌리에 닿았으니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마 3:7, 10).

반면에 복음의 진술은 그리스도와 그의 은혜, 그리고 믿음이 선한 행실의 열매를 맺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요 3:16). 이 때문에 겉보기에는 율법에 속한 것처럼 보이는 많은 진술도 그리스도의 빛 아래서 법적으로가 아니라 복음으로 한정하여 이해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눅 11:28).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이 명령은 네게 너무 어려워서 지킬 수 없거나 네게서 멀리 있지 아니하니 ... 오직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어 네가 그것을 행할 수 있느니라”(신 30:11, 14). 모세

시대에는 법적인 성격의 이 문장이 바울에게는 복음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롬 10:8). “허물이 없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와 율법을 지키며 온 마음으로 주를 구하는 자로다!”(시 119:1, 2).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곧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거하리라”(요 14:21, 23). “노아는 그의 시대에 의인이었고 완전하였으며 하나님과 동행하였느니라”(창 6:9).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 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창 17:1).

적용은 기본적으로 서로 다른 일곱 가지 영적 상황에 따라 일곱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청중의 범주

1. 불신자이며 무지하고 가르침을 받으려 하지 않는 자

이들은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교리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한다. 여호사밧은 레위인들을 유다 여러 성읍에 보내 백성을 가르쳐 우상숭배에서 돌이키게 하였다(대하 17:9). 이 준비는 그들의 태도와 성향을 파악하기 위한 논의나 토론과, 명백한 죄를 책망하여 그들의 양심에 두려움을 일으키고 가르침을 받을 마음을 열게 하는 데 일부 치중해야 한다(행 9:3-5; 16:27-31; 17:17; 17:22-24 참조). 만약 이들이 가르침을 받을 준비가 되었다는 희망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보통은 기초적이고 일반적인 점에 집중하여 말씀을 전한다(예: 바울이 아덴에서 행한 것처럼, 행 17:30, 31). 만일 이에 대한 긍정적 반응이 없으면 더 상세하고 포괄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그러나 그들이 계속해서 가르침 받을 수 없고 구원받을 실제 희망이 없다면, 단순히 떠나게 해야 한다(잠 9:8; 마 7:6; 행 19:9).

2. 가르침 받을 수는 있으나 무지한 자

이들에게는 교리문답 형태로 가르쳐야 한다(눅 1:4; 행 18:25, 26 참조). 교리문답은 기독교 신앙의 기초 교리를 질문과 대답 형식으로 간략히 설명한 것으로, 이해와 기억 모두에 도움이 된다. 따라서 교리문답의 내용은 기독교 신앙의 기본 원리, 즉 그 기초적인 요점의 요약이어야 한다(히 5:12). 신앙의 원리는 인간의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에 직접적이고 즉각적으로 관련된 성경적 진리이다. 이것들이 부인되고 거부되면 구원에 대한 희망이 없다. 그 여섯 가지 원리는 회개, 믿음, 세례(즉, 성례), 안수(즉, 말씀 사역을 대표하는 대용어), 부활과 마지막 심판이다(히 6:1-3). 교리문답의 특징은 기초 원리나 요소를 질문과 대답으로 명료하게

다룬다는 데 있다(행 8:37; 벧전 3:21). 터툴리안이 말했듯 “영혼은 씻음으로써가 아니라 대담함으로써 깨끗해진다.” 여기서 ‘젓’과 ‘진한 고기’의 차이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분류는 동일한 진리를 가리키나 교육 방식과 스타일이 다르다. ‘젓’은 신앙의 원리를 간단하고 명료하며 일반적으로 설명하는 것으로, 우리가 한 하나님과 삼위일체—아버지, 아들, 성령을 믿어야 함,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해야 함, 죄 사함을 믿어야 함, 회개하고 악을 버리며 선을 행해야 함을 가르친다. 반면 ‘진한 고기’는 세밀하고 충실하며 명료하게 신앙 교리를 다루는데, 타락 이전 인간의 상태, 타락, 원죄와 실제 죄, 인간의 죄책, 자유 의지, 삼위일체 신비, 그리스도의 두 본성, 그 본성들의 연합, 중보자로서의 그리스도 직분, 의의 전가, 믿음, 은혜, 율법의 사용 등 주제를 신중하고 명확하게 설명한다. ‘젓’은 지식이 미성숙하거나 연약한 초보자들에게 제공하고, ‘진한 고기’는 더욱 성숙하고 잘 교육받은 자들에게 제공되어야 한다(고전 3:1, 2; 히 5:13).

3. 지식은 있으나 겸손하지 않은 자

이 경우에는 바울이 말한 경건한 근심 속에 회개의 기초를 일깨워야 한다(고전 7:8-10). 경건한 근심은 죄가 죄라는 사실 자체 때문에 느끼는 슬픔이다. 이 정동을 자극하기 위해 율법 사역이 필요하다. 이로써 마음에 진정한 회개의 감정이 일어나거나 양심에 공포가 생길 수 있다. 비록 이것 자체만으로 온전히 유익하거나 건강하지는 않으나, 죄의 완고함을 꺾고 마음을 가르침받도록 준비시키는 데 필요한 치유책을 제공한다. 이러한 법적 근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아직 겸손하지 않은 자들 가운데 나타난 명백한 죄를 책망할 수 있는 적절한 율법 본문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한 죄에 대한 슬픔과 회개는 본질상 모든 죄에 대한 슬픔과 회개이다(시 32:5; 행 2:23, 8:22). 더 나아가 십자가의 고난과 외적 재앙으로 괴로워하는 자가 죄 자체를 근심하지 않고 단지 죄의 형벌에 대한 세속적인 슬픔만 가지고 있다면, 즉 죄를 죄로 슬퍼하지 않는다면 즉각적인 위로를 받지 않아야 한다. 그러한 슬픔은 반드시 먼저 경건한 근심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의학적 치유에 빗대어 보자면, 코피로 인해 생명이 위험한 사람이 있을 때 의사들이 코 출혈을 멈추기 위해 팔 등 적절한 부위에서 출혈을 유도하는 처치를 할 수 있다. 그 목적은 생명을 구하는 것이다. 그 후 복음이 선포되어 성령께서 실제로 구원을 이루시게 해야 한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사람을 새롭게 하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뜻을 행하도록 하며, 실제로 경건한 근심과 구원을 향한 회개를 그들에게 일으키기 때문이다. 완악한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율법을 강조하고 그 저주와 위협을 분명히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마음에 찢릴 때까지는

구원을 얻기 어렵다는 점도 가르쳐야 한다(마 3:7; 19:16, 17; 23:13, 33). 그러나 진정한 근심의 시작이 보일 때는 복음으로 위로해야 한다.

4. 이미 겸손해진 자들.

여기서는 이미 이루어진 겸손이 완전하고 견고한 것인지, 아니면 이제 막 시작되어 아직 가볍거나 피상적인 것인지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사람들이 적절한 시기 이전에 위로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단단해질 수 있는데, 이는 용광로에 던져진 쇠가 식으면 매우 단단해지는 것과 같다. 부분적으로 겸손해진 자들을 대할 때 다음과 같은 지침이 있다. 율법을 복음과 신중히 조화시켜 설명하여, 그들이 자신의 죄와 하나님의 심판에 두려워하는 동시에 복음 안에서 위로를 찾도록 해야 한다(창 3:9-15; 삼하 12; 행 8:20-23). 여기서 나단이 본보기를 제시한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진 그는 비유를 통해 다윗으로 하여금 자신의 참된 상태를 자각하게 한 후, 그의 회개가 확실할 때 용서를 선포하였다. 이처럼 완전히 겸손해진 자들에게는 믿음과 회개, 그리고 복음의 위로가 가르쳐지고 제공되어야 한다(마 9:13; 눅 4:18; 행 2:37, 38).

5. 이미 믿는 자들. 이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은 다음과 같다.

(i) 복음: 의롭다 하심, 성화, 인내에 관한 성경적 교리. (ii) 율법: 더 이상 저주 아래 있지 않은 자들에게 적용되는 율법으로서, 그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새 순종의 열매를 맺도록 가르치기 위함이다(롬 8:1; 딤후 1:9). 여기서 바울의 로마서 가르침이 본보기로 제시된다. (iii) 하나님께 의롭고 거룩한 자들은 율법의 저주로 위협받지 않아야 하지만, 남아 있는 죄에 대해 율법이 대립함은 여전히 강조되어야 한다.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죄의 두려움을 가지게 하려고 벌의 내용을 보여 주듯이, 참된 신자들은 율법의 저주를 자주 묵상하도록 권장받아야 한다. 이는 죄된 삶으로 하나님의 자비를 남용하지 않게 하고 겸손을 키우기 위함이다. 우리의 성화는 아직 부분적이다. 죄의 잔재가 제거되도록 항상 율법을 묵상하고 자신의 죄를 인식한 후 복음 안에서 심을 누리도록 하여야 한다.

6. 다시 타락한 자들.

어떤 이들은 믿음이나 생활양식 면에서 은혜의 상태에서 부분적으로 떠난 경우가 있다. 믿음에서의 실패는 복음 교리를 아는 데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붙드는 데서 실패하는 것이며, 지식의 실패는 복음의 부차적이거나 근본적 교리에서 오류로 빠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상황에서는 그들의 오류를 반박하는 특정 교리를 설명하고 가르치며, 회개 교리도 함께

강조해야 한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갈라디아서 6:1에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형제적인 사랑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참조: 딤후 2:25). 그리스도를 붙들지 못한 상태는 절망으로 이어진다. 회복을 위해서는 그들의 상태를 진단하고 처방을 내리며, 시험의 원인 혹은 상태의 원인을 분석해야 하는데, 이는 주로 개인 고백을 통해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다(참조: 약 5:17). 그러나 고백이 고문 수단이 되지 않도록 다음 원칙을 따라야 한다. (i) 고백은 자유롭게, 강요 없이 이루어져야 하며 구원이 고백에 달려 있지 않다. (ii) 모든 죄가 아니라 양심을 갇아먹으며 더 큰 영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죄만 고백해야 한다. (iii) 주로 목사에게 고백하되, 신뢰할 만한 교회 내 다른 사람과 비밀리에 공유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일단 진단 시, 고백자의 영적 상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는 자신이 하나님을 실망시켰기에 자기 자신도 불쾌해하는지, 죄를 죄로 미워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이것이 구원을 가져오는 회개의 기초이다. 둘째로, 그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바라며 그 바람이 마음속에 있는지를 묻는데, 이는 살아 있는 믿음의 기반이다. 진단이 끝나면, 복음에서 치료법을 처방하고 적용해야 하며, 치료법은 두 가지이다. 첫째, 여러 복음 진리를 설명하고 반복해서 확신시켜 주는데, 여기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된다: (i) 그들의 죄는 용서받을 수 있다. (ii) 은혜의 약속은 믿는 모든 이에게 보편적으로 주어진 것이며, 특정 개인에 한정되지 않아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다. (iii) 믿고자 하는 의지 자체가 믿음이다(시 145:19; 계 21:6). (iv) 죄가 은혜를 폐지하지 않으며, 오히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유익을 위해 모든 것을 선으로 전환하시기에 더 많은 은혜의 증거를 가져올 수 있다. (v) 이 타락하고 죄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모든 일이 하나님께 반하는 수단을 통해 행해진다. 둘째, 시험의 심한 괴로움 속에서도 가라앉아 있던 믿음을 일깨우도록 권면해야 한다. 그들은 자신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스스로 확신해야 하며, 혼자 혹은 다른 이들과 함께 육체적 정욕과 인간적 희망에 맞서 열심히 기도하며 싸우도록 독려해야 한다. 간절한 권면을 통해 이를 가능하게 하며, 심지어 원하지 않는 이들도 어떻게든 하도록 강제해야 한다(참조: 시 77:1, 2; 130:1, 2; 롬 4:18). 이러한 치료가 효과를 거두도록 하기 위해서는, ‘매고 푸는’ 사역 권능을 성경에서 정한 방식으로 사용해야 한다(삼하 12:13; 고후 5:20). 만약 우울증이 개인을 괴롭히면, 개인적으로 치료를 찾아야 한다. 생활양식의 실패는 노아의 음주, 다윗의 간음, 베드로의 부인과 같은 실제 죄를 범할 때 발생한다. 내주하는 은혜의 능력과 체험이 일시적으로 상실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복음과 함께 율법이 설교되어야 한다. 새로운 죄 행위가 있을 때마다 새롭게 믿음과 회개의 행위가 요구된다(사 1:4, 16, 18).

7.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혼합된 교회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일반적인 상황이다. 율법이든 복음이든, 성경적 한계와 범위를 엄격히 지키는 한 어떤 교리든 그들에게 선포될 수 있다(요 7:37 참조). 이것은 선지자들이 악인들에게 심판과 멸망을 선포하고,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메시아 안에서 구원을 약속했던 설교 방식이었다. 그러나 만약 회개하지 않고 절망하는 자가 있을 때, 그리고 다른 이들이 완고해질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답은 다음과 같다. 완고한 자들은 대상 인물과 죄에 제한된 범위 안에서 율법을 들려야 하며, 고통받는 양심은 특별히 그 양심에 맞게 적용된 복음의 음성을 듣도록 도와야 한다.

VIII. 적용의 종류

적용에는 두 가지가 있다: 정신적 적용과 실천적 적용.

정신적 적용

정신적 적용은 마음에 관한 것으로 교리나 책망을 포함한다(딤후 3:16, 17). 교리 적용은 성경 가르침을 사용하여 마음이 합당한 믿음을 판단하도록 돕는 것이다. 책망은 잘못된 가르침에서 마음을 되돌리는 데 성경 가르침을 활용하는 것이다. 성경 해설 중에 거짓 가르침을 반박할 때는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한다.

1. 다를 쟁점이나 ‘논점의 현황’을 철저히 이해할 것.
2. 현재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오류만 책망하고, 과거의 죽은 오류나 신자들과 관련 없는 오류는 영적 위험이 지속되지 않는 한 그대로 둘 것. 계시록 2장은 버가모 교회가 니골라당 교리를 경계하도록 한 사례이다.
3. 오류가 복음의 근본적 기초가 아니면 반박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자세로, 또한 친근하고 부드럽고 형제적인 태도로 해야 한다.

실천적 적용

실천적 적용은 삶의 태도와 행위에 관한 것으로, 가르침과 교정을 포함한다. 가르침은 가정, 국가, 교회 맥락 속에서 잘 살도록 교리를 적용하는 것이며, 권면과 격려를 포함한다(롬 15:4). 교정은 불경건과 불의한 삶을 변화시키기 위한 교리 적용으로, 권고를 포함한다. 이 권고는 처음에 구체적인 사례 없이 일반적으로 행해져야 한다. 이 원칙은 나단이 다윗에게 죄를 일반적인 비유로 지적한 삼하 12장에 잘 나타나 있다. 바울도 유사한 방식을 채택한 것으로 보인다(행 19:26, 35, 37 참조). 이런 책망이 열매를 맺지 않으면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해야 한다(딤후 5:20 참조). 그러나 죄에 대한 혐오 표현은 반드시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분명한 사랑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가능하면 목사는 자신의 연약함을 포함하여 자신을 책망하는 태도를 취해야 하며, 이를 통해 설교와 교육, 상담이 온유하고 부드러운 영으로 전달된다(단 4:16-19; 고전 4:6; 갈 2:15 참조). 이러한 다양한 적용 방법은 성경의 모든 구절에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마티아스 플라키우스 일리리쿠스(1520-75), 루터파 신학자가 마태복음 10:28에 대해 쓴 내용을 예로 드는 것이 유익하다. 이 구절에서 예수는 제자들에게 몸만 죽일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지옥에서 멸할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고 권면한다. 이 본문에서 우리는 믿음의 고백과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여러 교리를 도출할 수 있다.

교리

1. 필요할 때마다 우리가 아는 교리를 공개적으로 고백해야 한다.
2. 재산과 생명을 잃을 위험이 있더라도 이 고백을 해야 한다.
3. 그리스도와 그의 진리에 비해 우리의 생명을 경시해야 한다.
4. 그리스도와 그의 진리를 부인하는 자들에게는 영혼과 몸에 걸친 영원한 형벌이 준비되어 있다.
5. 하나님은 우리가 올바르게 고백할 수 있도록 다스리고 인도할 의도와 준비가 되어 있다.
6. 하나님의 섭리는 일반적일 뿐만 아니라 특정하며, 우리의 머리털 하나하나까지 포함한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도 아우른다.

책망

1. 믿음과 올바른 종교관을 마음에 품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특히 생명이 임박한 위기에 처했을 때, 장소와 시간, 사람의 조건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사람들 앞에서 어떤 것을 허락하거나 인정하는 것이 인간의 권한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동일하게 잘못이다.
2. 에피쿠로스 학파는 신의 위엄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하여 신의 섭리를 부인하는 점에서 오류가 있다.
3. 스토아 학파는 모든 일이 운명(또는 불가항력적이고 격렬한 필연성)으로 지배된다고 생각하는 점에서 오류가 있다.
4. 신의 현명한 섭리를 우연이나 행운으로 대체하는 자들도 잘못이다.
5. 펠라기우스파는 믿음을 인간의 자유 의지에 따라 자유롭게 받아들이거나 굳건히 지키며 두려움 없이 끝까지 고백하는 것이 인간 힘의 범위에 있는 것처럼 과장하는 데 오류가 있다.
6. 다른 이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심보다 외적인 것과 불안정한 재물에 더 의존하는 데 잘못이 있다.

교훈

1. 이제 유일하신 하나님이 모든 인간보다 두려워할 존재임을 배웠으므로, 주어진 능력 내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도록 힘써야 한다.
2. 인간적인 것을 경멸하는 태도를 배워, 항상 그것들을 버리고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있기를 소망해야 한다.
3. 하나님의 특별한 섭정을 생각함으로써 하나님이 모든 것을 두루 살피며 아시는 분임을 인식하고, 그분의 도움을 구하며, 모든 일에 도움을 입고 있음을 믿으며, 마침내 적절한 때에 하나님께서 아무리 끔찍한 위협이라도 구원하실 능력과 뜻이 있으심을 믿도록 가르쳐야 한다.

교정

1. 그리스도의 이 말씀은 성심으로 사랑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 자들의 태만을 바로잡아, 불타는 사랑으로 인해 그 이름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내어놓게 한다.
2. 여기에는 모든 일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거나 보지 않는 이들의 태만에 대한 비판도 포함된다.
3. 또한 섭리 가운데 우리를 다스리고 보호하시리라 약속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는 자들에 대한 책망도 있다.
4. 하나님의 선한 창조를 잘못 사용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돌보심이 분명하므로 책망받아야 한다.

성경의 어느 구절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다룰 수 있다. 다만 모든 교리를 매번 해설하려고 해서는 안 되며, 교회의 현재 경험과 상황에 적절히 적용할 수 있는 것만 신중하게 선택하여 제한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청중이 하나님의 말씀 해설을 듣고 적용이 과다하여 벅차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IX. 기억력 사용

설교는 통상적으로 마음(또는 기억)에서 직접 행해지므로 기억력 사용에 대해 언급할 필요가 있다. 장소나 이미지에 의존한 인위적 기억 보조법은 설교를 쉽게 암기하게 할 수 있으나, 여러 이유로 허용될 수 없다.

1. 이미지를 자극하여 기억을 환기시키는 기억 보조법은 신령치 못한 활동에 빠뜨린다. 그러한 방법은 부적절하고 부당하며 본질적으로 괴이한 사고를 요구한다. 특히 육체의 가장 부패한 정동을 고양하고 자극하는 경우에 그러하다.
2. 인위적인 암기법은 마음과 기억을 둔하게 만든다. 세 단계의 기억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먼저 장소를, 그다음 이미지를, 마지막으로 실제 말할 내용을 기억해야 한다.

설교 준비 시에는 공리적, 연역적, 체계적인 방식으로 교리의 여러 증거와 적용, 적용의 예시 그리고 해설 순서를 마음에 새기는 것이 더 도움이 된다. 사용하는 정확한 단어에 지나치게 얽매일 필요는 없다. 호라티우스가 말했듯이, 단어는 미리 생각한 내용을 기꺼이 따른다.

원고를 한 단어 한 단어 모두 암기하는 방식은 단점이 많다. 우선 막대한 노력이 필요하다. 또 긴장으로 어느 부분을 놓치면 청중과 설교자 모두 혼란에 빠진다. 게다가 이 행위는 기억이 실패할까 봐 마음이 무거워져 발음의 자유, 행동, 성령께서 주시는 영적 정동의 자유로운 흐름을 방해한다.

X. 말씀 선포

우리는 설교 내용 준비를 논의했다. 이제 실제 설교 그 자체에 관해 생각해야 한다. 여기서 필수적인 두 가지는 (i) 인간 지혜의 은폐, (ii) 성령의 나타남 또는 증명이다.

인간의 지혜는 설교 내용과 설교에 사용하는 언어 모두에서 숨겨져야 한다. 말씀 선포는 하나님의 증언이며 그리스도 지식의 고백이지 인간 기술의 과시가 아니다. 또한 청중은 자신들의 믿음을 인간의 은사에 돌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돌려야 한다(고전 2:1, 2, 5).

하지만 이것이 설교가 지식이나 교육의 결여를 보여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목회자는 설교 준비 과정에서 일반 예술, 철학, 다양한 독서 등을 자유롭게 활용해야 한다. 다만 이러한 것들은 공개 설교에서 청중 앞에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숨겨야 하며, 과시해서는 안 된다. 라틴 속담에 ‘진정한 예술은 예술을 숨기는데 있다(Artis etiam celare artem)’라 하여 ‘기술도 감추는 것이 하나의 기술’이라 했다.

‘성령의 증명’(고전 2:4)은 설교 시 설교자의 태도와 행위가 복음을 모르고 믿지 않는 이들에게도 설교자가 아니라 그 안에서 그리고 그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임을 분명히 알게 하는 데서 실현된다(미 3:8; 고전 2:4; 14:24, 25; 4:19, 20). 이것이 설교자의 사역을 생명 있고 능력 있게 만든다(눅 11:27).

이 ‘증명’은 언어나 몸짓으로 나타난다. 언사는 신령하고 은혜로우야 하며, 신령한 언사는 성령께서 가르치신 말이다(고전 2:13). 이것은 단순하고 명료해서 청중의 이해에 적합하며, 성령의 위엄을 표현하는 데 알맞아야 한다(행 17:2, 3; 고후 4:2-4; 갈 3:1).

따라서 예술 분야의 전문 용어, 그리스어·라틴어 구절, 이상한 표현들을 설교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들은 말씀의 내용과 이후 내용 간 연결을 이해하지 못하는 청중의 마음을 산만하게 하며, 오히려 이해를 방해하고 청중의 주의를 본문에서 다른 곳으로 돌리기 쉽다. 이와 함께 단순한 이야기나 저속하거나 어리석은 표현도 피해야 한다.

은혜로운 언사는 마음의 은혜를 나타낸다(눅 4:22; 요 7:46). 이러한 은혜는 개인의 은혜이거나 사역의 은혜다. 개인의 은혜는 마음과 흠 없는 삶의 거룩함이다. 이 자체만으로 목회 자격을 보장하지는 않으나, 목회자는 이것 없이 목회 사역을 감당할 수 없다.

1. 말씀 교리는 이해하고 실천하기 어렵기에, 목회자는 가르치는 바를 스스로 본보기로 삼아 삶으로 드러내야 한다(빌 4:8; 딤후 4:12; 벰전 5:3).

2. 누구든 성경을 많이 알아도 마음속에 말씀에 대한 내적 감각과 체험이 없으면 경건하지 않다(창 18:17-19; 시 25:8, 9; 암 3:7).

3. 하나님은 경건한 삶과 결합되지 않은 경건한 말을 미워하신다(시 50:16, 17). 나지안수스의 그레고리우스(329년경~389년경)가 말했듯, 타인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할 자가 스스로 길을 잃는 것은 몸에 병이 드러난 의사를 보는 것만큼이나 이상하다.

4. 목회 비결 중 하나는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다. 일반 사람들은 목회와 목회자를 구분하지 못한다. 그들은 목회자의 인격을 평가하지 않고서는 목회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다. 헤롯이 세례 요한을 기꺼이 들은 건 그가 훌륭한 목회자여서가 아니라 훌륭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막 6:20). 또한 그레고리우스는 “바른 교리를 가르치면서도 사악하게 사는 자는 한 손으로 얻은 것을 다른 손으로 내친다”라고 지적했다.

요한 크리소스토무스(347~407)는 마태복음 20장을 주해하며 “교회의 의사가 올바로 가르치고 올바로 살아 백성에게 올바른 삶을 가르치지만, 악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그를 정죄하는 방식을 가르치신다”고 하였다. 또한 “말로 지혜를 보여주는 것은 쉽지만, 삶을 통해 나를 가르쳐라. 이것이 최고의 가르침이다”라고 하였다. 말보다 행위가 영혼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5. 목회자가 공개적이거나 은밀하게 악하면 거룩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면전 앞에 설 자격이 없다(레 10:3; 사 6:6-8; 렘 15:19). 그러므로 악한 목회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한다(삼상 2:17, 25).

거룩함

목회자와 관련해 거룩함은 다음 요소들을 포함한다.

1. 선한 양심(행 24:16; 고후 1:12; 딤편 1:19). 이것이 없으면 설교자의 입은 닫히게 된다(사 56:10).
2. 설교할 교리에 대한 내적 감각. 불이 붙을 수 있는 나무가 불을 붙이지 않으면 타지 않는 것처럼, 다른 이에게 경건한 정동과 소망을 일으키려는 자는 먼저 자신 마음속에 경건한 정동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특정 설교가 요구하는 반응들은 먼저 스스로 불러일으켜야 하며, 그래야 청중에게 동일한 불꽃을 지필 수 있다.
3. 하나님의 두려움. 하나님의 위엄에 대한 경외심으로 총만하여 절제되고 차분하게 말하게 한다.
4. 백성에 대한 사랑(살전 2:7). 이러한 정동을 북돋우기 위해 목회자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진지하고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삼상 12:23).
5. 목회자는 인내와 성실, 진중함과 진실성으로 존경받을 만해야 하며, 회중의 특성에 맞춰 개인적이든 공적이든 타인을 존중할 줄 알아야 한다.
6. 그는 절제해야 하며, 내적으로 강한 정동을 억제해야 한다. 그의 외적 행동 양식과 몸짓은 절제되고 단순명료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는 위엄과 권위를 갖게 된다. 따라서 그는 탐욕스럽거나 술을 과하게 마시거나 소송을 좋아하거나 다투기 좋아하는 성격이거나 갑작스러운 분노를 터뜨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젊은 남자들은 경건에 자신을 바치고 청년기의 욕망을 거부해야 한다(딤편 4:7).

은혜

사역자의 은혜는 다음과 같은 자질들로 이루어진다:

1. 그는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딤편 3:2). 바울은 이 은사가 단순히 매우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하며 결코 없어서는 안 되는 본질적인 것이라고 말한다. 그것이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오스가 주교직을 거부한 이유이다. 데오필락토스는 이 구절에 대해 “이 가르치는 의무는 주교들에게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필수적이다”라고 논평한다. 실제로 니케아

공의회와 밀레투스 공의회에서는 사역자의 이름을 유지하되 복음을 설교하는 것은 허락하지 않는 처벌 대신 이 가르침의 의무를 부과하였다.

2. 권위, 즉 설교자가 위대한 여호와의 대사로서 말하는 권위(딤후 2:15; 벰전 4:11).

3. 열정, 곧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하여 자신의 사역을 통해 남성과 여성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택정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열정(욥 32:18-19; 골 1:28-29; 딤후 2:25).

신체적 몸짓

몸짓은 음성이나 신체의 행동을 포함한다. 음성은 모두가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커야 한다(사 58:1; 요 7:37; 행 2:14). 설교에서 교리를 해설할 때는 절제되어야 하지만, 권면할 때는 더욱 열렬하고 강렬해야 한다. 몸짓에는 엄숙함이 있어야 하며, 그것이 사역자를 우아하게 꾸민다. 따라서 설교자는 몸통은 곧게 세우고 고정하며, 팔, 손, 얼굴, 눈 등 다른 부위가 그의 마음의 영적 정동을 표현하고, 마치 말하는 것처럼 나타내는 것이 적합하다. 성경은 신체 행동의 의사소통적 힘을 보여주는 예를 제공한다. 눈과 손을 들어 올리는 것은 확신을 나타낸다(대하 6:13-14; 행 7:55). 눈을 내리는 것은 슬픔과 무거움을 의미한다(눅 18:13). 몸짓에 관해서는 더 이상의 원칙을 정할 수 없으나, 널리 존경받는 경건한 사역자들의 본보기가 지도 역할을 할 것이다.

XI. 공개 기도

우리는 말씀 선포에 관해 논의해왔다. 이제 마지막으로 공개 기도 인도에 관해 언급해야 한다. 이것이 예언의 두 번째 양상이다. 이때 사역자는 백성의 목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는다(삼상 14:24; 눅 11:1).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주목해야 한다:

1. 공개 기도의 주제는 먼저 백성의 결점과 죄악이며, 그다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그들이 필요로 하는 복이다(딤후 2:1-2). 테르툴리아누스는 “우리는 모든 황제들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그들이 긴 생명, 평화로운 통치, 안전한 가정, 용맹한 군대, 충실한 신하들, 평정한 세계, 그리고 인간과 황제가 바라는 모든 것을 얻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한다. 또 “우리는 황제들을 위해 그들의 신하들과 권세자들, 당시 국가의 상황, 그들의 업무의 평온, 그리고 그들의 죽음이 늦어지기를 기도한다”고 한다. 주기도문은 이 영역들을 여섯 가지 항목으로 다루는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순종, 생명 보존, 죄 사함, 영의 강건함이다.
2. 기도의 형식은 다음과 같다: 한 음성, 즉 오직 사역자의 음성만이 기도를 이끌며, 회중은 조용히 참여하되 끝에 “아멘”으로 동의함을 나타낸다(느 8:6; 행 4:24; 고전 14:16). 초기 교회에서는 저스틴이 말하듯 “주최자가 기도와 감사기도를 마치면, 참석한 모든 사람이 호의적인 승락으로 ‘아멘’이라고 외쳤다”는 것이 관행이었다.
3. 그러나 회중의 공동 기도를 표현하는 한 음성은 잘 이해되어야 한다(고전 14:15). 기도는 불규칙하고 단절된 방식으로 인도되어서는 안 되며, 청원들이 부드럽게 이어져 공허한 반복을 피해야 한다(마 6:7).
4. 기도하는 데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 (i) 기도할 적절한 내용을 신중히 생각하기; (ii) 주제들을 적합한 순서로 배열하기; (iii) 회중을 세우는 방식으로 공개적으로 기도 표현하기.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이 있을지어다!

요약

설교는 다음을 포함한다:

1. 정경 성경에서 본문을 명료하게 낭독하는 것.
2. 본문 낭독 후, 성경 자체의 빛 안에서 그 의미를 설명하는 것.
3. 본문의 자연스러운 의미에서 유익한 교리를 몇 가지 도출하는 것.

4. 설교자가 적절한 은사를 지녔다면, 그렇게 설명된 교리를 회중의 삶과 실천에 단순명료한 언어로 적용하는 것.

핵심은 이것이다: 한 분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설교하여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

Soli Deo Gloria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있을지어다!

